

9-10-201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양육 방안

Eun Young Yeob 엮은영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엮은영,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양육 방안."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METHODOLOGY FOR LAY TRAINING BASED O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GRACE ACCORDING TO THE PAULINE LETTERS

written by

EUN YOUNG YEOB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in Ki Hwang


Euiwan Cho

September 10, 2014

**A METHODOLOGY FOR LAY TRAINING BASED O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GRACE
ACCORDING TO THE PAULINE LETTER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YOUNG YEOB

SEPTEMBER 201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 방안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진기 교수

엽 은 영

2014년 9월

Abstract

A Methodology for Lay Training

Based o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Grace according to the Pauline Letters

Eun Young Yeob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motivation behind this paper originates from the Korean church's loss of trust in society and its crucial need to demonstrate responsible action regarding social and ethical issues. Its purpose, as outlined in the paper's introduction, is to find teaching plans to educate believer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indifference and isolation from the society. The paper will delve into specific methodology and alternatives to make this possible.

By analyzing passages in the letters of the apostle Paul, chapter 2 examines the theolog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grace in the lives of Christians. Acknowledging that the source of grace is God, the chapter discusses the identity of all Christians by following Christ who is the Son of God, heir of the kingdom of God, agent of sovereignty, and the second Adam. Thus, they are to fulfill God's calling in the world as children of God, new creature, and servant of Christ by exemplifying the grace of God.

Chapter 3 diagnoses misunderstandings and practical errors regarding the grace of God prevalent in Korean churches and society, such as a narrow understanding of salvation, practical misconceptions of central doctrines, the problem of "cheap grace," disconnection between the world and the church, and the secularization of the church.

In chapter 4, analytical studies use the perspective of grace to examine churches' vi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y training systems at Sarang Church and Poong Sung Han Church in Korea as well as Houston Baptist Church

and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 in-depth studies of these four churches mak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in regard to the issues presented in chapter 3.

Chapter 5 presents a 15-week training plan based o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grace that can be applied in local churches. The training plan encompasses three distinct areas: (1) a vision of the church training lay people, which is to help lay people recognize their identity as beneficiaries of grace, and thus take the challenge of active social change; (2) the principle of the lay training, that is, to fulfill their calling as beneficiaries and deliverers of grace; (3) an analysis of the index of grace, through which one evaluates the level of grace in one's life by reflecting on his/her relationship with Christ, personal life, and character shown toward neighbors in one's community. With the grace of God always the core principle, the training model includes a vision of team ministry, evangelism, spiritual formation, one-on-one personal mentoring, and social and cultural reformation so that effective ministry can be practiced in the world.

In conclusion, Korean churches will restore social trust only through fulfilling their mission of serving world in accordance with biblical teachings and following Christ. This can be possible only through the critical reflection by lay people about their identity, the training accompanied by discussions of social issues and theory as well as personal experiences as Christians in the world, and the unity of Christians in the world as the body of Christ exemplifying grace.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Euiwan Cho, PhD

현 사

이 논문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종을 세우기 위해 수십 년을 변함 없이 산기도, 철야, 그리고 눈물의 금식을 통해 헌신하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위해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실히 동역하고 있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글

창13:14-15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풀려신학교에 온 저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방법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시작하면서 끝내는 순간까지 미국 이민교회의 사역현장을 다양한 사역을 통해 경험하도록 도와주신 브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 교회를 위한 진정한 헌신의 모델을 보여주신 박형식 장로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주신 시온성가대, 그리고 사역과 교제를 통해 함께 동역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문화와 언어의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신 양로보건센터의 수많은 어르신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에 걸쳐 이분들이 전해주시는 수많은 사랑의 빛들과 환한 미소로 전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은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역과 학업의 톱니바퀴 속에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유혹에 영적으로 매달라가던 저에게 LA에서의 힘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의 열정으로 거룩한 비전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해준 마중물이었습니다.

뛰어난 통찰과 예리한 지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본 논문을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한인목회학박사원 원장님이신 황진기 교수님과 따뜻한 격려와 친절한 안내를 통해 코스 과목과 논문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도해주신 조의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칭찬과 격려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부족한 사위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간절한 기도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후원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가장 귀한 것을 통해 동역해주신 기도모임 불기둥, 소중한 마음을 전해준 친지들,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따라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9월 엽은영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개요	4
제 2 장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	6
제 1 절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	7
1. 은혜의 용어들	7
가. χάρις	7
나. χαρίζομαι	10
다. χαριτόω	11
라. ἀχάριστοι	12
2. 은혜의 근원과 주체	13
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14
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치신 은혜	14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14
3. 은혜의 목적과 기능	15
가. 은혜의 목적	15
나. 은혜의 기능들	17
4. 은혜의 신학적, 실천적 의의	25
제 2 절 은혜의 수여자이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	27
1. 그리스도의 정체성	27
가. 은혜의 근원이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	28
나. 하나님의 아들 / 상속자 / 하나님의 대권의 대행자	28
다. 둘째 아담	30
라. 주 (인자)	31

2. 은혜의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	33
가. 은혜 수여의 표현으로서의 자기비하	33
나. 은혜 수여의 표현으로서의 십자가 죽음	34
제 3 절 은혜의 수혜자이자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	35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35
가. 하나님의 /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	36
나. 은혜의 통로: 화해의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신	39
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나라 /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41
2. 그리스도인의 사명	42
가. 그리스도의 사역 계승: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43
나. 복음의 전달자	44
다.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예배자	44
라. 공동체 건설자	48
마. 제자도	51
제 4 절 소결론	54
제 3 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	56
제 1 절 교리지상주의	57
제 2 절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	59
1. 개인과 사회의 분리	59
2. 내세 중심 또는 현세 중심의 편향된 구원 이해	60
가. 시한부 종말론: 내세를 강조하는 구원 이해	60
나.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 현세를 강조하는 구원 이해	61
제 3 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	63
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	63
2. 기독교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	65
제 4 절 세상과 교회의 단절 (이원론)	66
1. 개교회 중심의 교회 사역과 교회 성장주도 사역의 문제	66

2.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의 부재	67
제 5 절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복음의 상품화	68
제 4 장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평신도 양육체계 분석	71
제 1 절 사랑의교회	72
1. 교회 목표 및 비전	73
가. 평신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루기	73
나. 세상을 섬기는 소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세우기	74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75
2. 양육훈련의 특징	77
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격과 삶을 훈련	77
나. 은사개발, 리듬과 균형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훈련	78
3. 은혜와 양육 체계	79
가. 제자훈련	80
나. 사역훈련	83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	87
가. 양육체계의 장점	87
나. 양육체계의 단점	88
제 2 절 풍성한교회	90
1. 교회 비전	90
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90
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91
다. 사명 선언문	91
2. 양육훈련의 특징	92
가. 강한 동기 부여와 특수성 고려	93
나. 불신자 전도 양육	94
3. 은혜와 양육 체계	95
가. 전인적치유수양회	96

나. 12주 양육반 과정	97
다. 여덟 가지 수레바퀴	99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	101
가. 양육체계의 장점	102
나. 양육체계의 단점	103
제 3 절 휴스턴서울교회	104
1. 교회 비전 및 교회 특징	104
가. 가정교회의 세 가지 원칙	104
나. 가정교회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 사역목표	106
2. 양육훈련의 특징	108
가. 눈높이 양육을 통해 불신자를 평신도 리더로 세우기	108
나. 체계적인 신앙생활의 기초세우기.	109
3. 은혜와 양육 체계	110
가. 필수과정	111
나. 선택과정	115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	118
가. 양육체계의 장점	118
나. 양육체계의 단점	119
제 4 절 나성 영락교회	120
1. 교회 비전	120
가. 복음을 통한 전인적 구원과 이만사회에 부응하는 교회	120
나. ‘분담목회’를 통한 평신도 지도력 개발과 2세 목회의 강조	121
다. 배움의 문화를 통한 사회 기여	122
2. 양육훈련의 특징	123
가. 모든 평신도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양육 ..	124
나. 성경을 통한 양육과 집회를 통한 양육	124
다. 평신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양육 ...	125
3. 은혜와 양육 체계	126

가. '새 생명의 삶'과 은혜	127
나. 'BC/AD (내적치유) 수련회'와 은혜	128
다. '성화의 삶'과 은혜	128
라. 'LT (지도자 훈련) 수련회'와 은혜	130
마. '지도자의 삶'과 은혜	130
바. '지도자 세미나'와 은혜	131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	132
가. 양육체계의 장점	133
나. 양육체계의 단점	134
제 5 절 소결론	135
 제 5 장 지역교회를 위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모델	139
제 1 절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교회 비전 (뼈대세우기)	140
1. 은혜의 수혜자에 대한 이해: 은혜의 목적을 중심으로	141
가. 현재 삶 속에서 구원의 영향	142
나. 소망 가운데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기	143
2.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인식	144
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	144
나. 지체들과 사명을 나누며, 사회 변혁을 위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	146
제 2 절 양육 훈련의 원칙들 (뿌리내리기)	148
1.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149
가. 은혜의 수여자, 대행자	149
나.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	151
2.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	154
가. 은혜의 수혜자, 전달자	154
나.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종	155
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157
라.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	158

제 3 절 양육 훈련 모델 (열매 맺기)	162
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지수 점검	163
가.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 회복하기: 소명의 재확인을 통한 관계의 회복 ...	163
나. 개인의 삶 점검: 종말론적 긴장의 삶과 사명을 위한 고난	166
다. 공동체 생활 점검: 중보기도와 헌금	169
라. 이웃을 향한 성품 점검: 융통성과 배려, 감사와 격려	173
2.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공동체	176
가. 분담 목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사역분배 및 협력사역	176
나. 성경공부와 전도훈련: 전도 실습과 토론 및 발표	178
다. 성경공부와 영성훈련: 삶의 나눔과 영성체험을 강화	179
라.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 1대1 개인 멘토링	180
마.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도록 평신도들을 세우는 교회	182
제 4 절 소결론	183
 제 6 장 결 론	185
제 1 절 연구 요약	185
제 2 절 연구의 의의, 적용가능성, 제언	188
1. 의의	188
2. 적용가능성	189
3. 제언	190
 부록	191
 참고문헌	196
 VITA	20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김병언 교수는 한국 개신교회의 발전과 건전성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언론사와 기관들이 연합하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분석하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C-'라고 선언하였다.¹⁾ 한국 개신교회에 불신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8.3퍼센트,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3.3퍼센트 인데, 이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특히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불신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타종교인 불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호감도 조사 결과 불교의 호감도는 31.5퍼센트, 가톨릭의 호감도는 29.8퍼센트인 반면에, 기독교의 호감도는 20.6퍼센트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009년에 한국 교회의 10년 후 모습을 예측하기 위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성장을 막는 이유에 대해 전체의 63퍼센트의 응답자가 목회자와 성도의 낮은 윤리적 수준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시 능력 결여라고 대답하였다.²⁾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있는 행동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 현장의 실제 모습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교회의 상황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모델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

1) 김병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C-," *목회와 신학* (2008년 12월호), 111.

2) 최원준, 문인수, "10년후 한국교회 설문조사 결과 분석," *목회와 신학* (2009년 7월호), 95.

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에서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았다.³⁾ 하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사회적 공동체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적인 행동과 죄에 대해 싸우지 않음으로 또한 회개한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현재 심각한 사회적 신뢰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

보수적 신앙 전통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모습은 엄격한 교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교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침투라고 보고 세속적 가치관의 침투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복수 교수는 이와 같은 복음주의 입장을 가진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은둔자의 삶을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 즉 개인을 향한 영혼구원과 같은 영적인 문제에 전념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주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오직 복음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위험한 시도로 오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직장 과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문화의 보급 그리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기독교 단체들의 활동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전념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에 빠져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과의 분리를 외치며 교리를 통해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개인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3) 고재길,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장신논단* (2013년 6월호), 118-126.

4) Ibid., 137-138.

5) 이복수, “사회활동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와 선교,” *기독교사상연구* 6 (1999), 118.

이와 반대로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장애물인 것처럼 꺼려하고 있다. 즉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며, 아담의 원죄로 인한 모든 인간의 타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들여와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담을 없애는 일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개인 경건생활에 열심인 성도들을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바리새인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보다는, 이 시대에 모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그들의 시대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예배, 경건 훈련, 말씀 교육과 전도, 선교가 단지 사회봉사라는 한 분야로 모든 것이 파묻힌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서서히 세상과 화목하고 교제하여, 세상의 가치로 교회가 세속화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면적인 상황들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값싼 복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⁶⁾ 결과론적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양면적인 모습의 확산은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사명자로 만들었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삶의 모델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와 물질

6)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부 평신도들은 만인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구호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사례를 들어, 개신교의 역사적 전통은 선교적 사명보다는 개인의 믿음과 교회 질서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타적인 신앙관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80-81.

만능주의라는 세속화 현상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자 버팀목인 ‘은혜’의 통전적인 요소가 바울 서신서 속에서 어떻게 지역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사명자로서의 헌신의 삶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은혜의 전인적 요소를 통한 평신도 양육 과정이 교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와 실천적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제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개요

본 논문에서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통전적 이해 부분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은혜의 전인적 요소가 어떻게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구체화되었는가에 범위를 한정해 살펴볼 것이다. 평신도 양육과 관련한 실천적 또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평신도 양육의 핵심적인 가치와 방향들을 중심으로 은혜의 전인적 요소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2장의 바울 서신의 연구 부분에서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을 성경해석학 전문서적, 학위 논문 등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3장 한국교회에서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에 관한 연구 부분에서는 언론사 자료, 전문서적, 학위 논문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한편 실제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4장 부분에서는 사랑의 교회, 풍성한교회, 휴스턴서울교회, 나성영락교회에서 발간한 책자들과 자료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은혜의 전인적 요소에 대한 시각으로 분석할 것이다.

세부 개요를 살펴본다면 1장에서는 문제 제기, 본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는 바울 서신들 속에 나타난 은혜가 은혜의 용례들,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관점을 통해 어떻게 바울 서신서들 속에서 통전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 평신도 양육 체계와 사역들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소개할 것이다. 5장에서는 지역교회를 위한 은혜의 통전성에 근거하여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신도 양육 방법과 사역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된 연구 성과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체험에 기반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은혜에는 어떠한 역할과 목적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경험한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셨는지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의 수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제시한다.⁷⁾ 다시 말해 바울은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공적인 사역으로 확대한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사역의 원칙들이 필요한지,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윤리적 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바울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은혜의 용어들의 용례를 살펴보고, 은혜의 수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 곧 사명과 역할을 살펴보고, 은혜의 수혜자이자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7) 은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시는 가를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어이기에,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바울은 “χάρις”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복음이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용어로 사용하였다. Larry Richards, “은혜,” *신학용어해설사전 (Dictionary of Basic Bible Truths)*,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304-305.

제 1 절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⁸⁾

1. 은혜의 용어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바울서신에서 '은혜'의 의미로 사용된 χάρις, χαρίζομαι, χαριτόω, ἀχάριστοι 등과 같은 단어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들 단어들의 어원과 용례들을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은혜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사용되었으며, 바울 서신을 포함한 신약 성경 속에서 사용된 의미와 차이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χάρις

(1) 칠십인경의 χάρις

χάρις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חַנּוּן과 חַסֵּד이다. 구약의 후반부 표현에서는 חַסֵּד가 חַנּוּן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전에 가졌던 חַסֵּד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חַנּוּן과 חַסֵּד가 두드러지게 합쳐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⁹⁾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칠십인경에서 חַסֵּד는 친절(호의)과 우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선한 의지와 선한 행위 사이의 논리적인 구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חַסֵּד는 선의를 나타내거나 친절한 행동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의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진행 중인 교제를 전제하고 있다.¹⁰⁾ 이 밖에 חַסֵּד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는데,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속에서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8) 바울서신에서 “χάρις”가 사용된 곳을 Nestle-Aland (27판) 헬라어 성경을 기준으로 권별로 분석한다면, 로마서는 21회, 고린도전서는 8회, 고린도후서는 18회, 갈라디아서는 7회, 에베소서는 12회, 빌립보서는 3회, 골로새서는 5회, 데살로니가전서는 2회, 데살로니가후서는 4회, 디모테전서는 4회, 디모테후서는 5회, 디도서는 4회, 빌레몬서는 2회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총 95회가 사용되었다.

9) Walther Zimmerli, “χάρις κτλ,”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9 (Grands Rapids, MI: Eerdmans, 1974), 381.

10) Ibid.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은혜의 행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의 고백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야훼 하나님은 707를 공급하는 자로 나타났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707를 받는 대상으로서 또는 그들 스스로가 상호 간에 707를 나타내는 방식을 나타내었다.¹¹⁾

(2) 바울서신에서의 χάρις

바울서신에서 χάρις는 바울이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χάρις는 “감사(thanks)” 또는 “감사를 드리는(thank-offering)”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는데, ‘감사’의 의미는 롬6:17; 7:25; 고전15:57; 고후8:16; 9:15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는 고전16:3; 고후8:1에서 나타난다.¹²⁾ 둘째, χάρις는 구원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언어학적으로 χάρις가 의미하는 출발점은 “선물로서 즐겁게 만드는 것”과 같이 값없이 얻은 은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된 은혜의 사건을 제시한다.¹³⁾ 즉 바울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구체화된 은혜를 설명하였고(갈2:21),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은혜를 실제적인 사건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바울서신에 나타난 χάρις는 하나님의 호의가 십자가 고난과 일치할 때만 은혜의 절대성이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은혜는 구원의 전제로서(고후6:1), 죄인에게 나타나며(롬3:23; 5:10), 오직 믿음 안에서(롬3:24),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전1:4).¹⁴⁾ 넷째, χάρις는 단지 칭의의 기초가 아니라, 성도들이 십자가 안에서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고후9:8), 또는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는 것이 아닌 은혜의 교제 안에서 세워지도록

11) Zimmerli, “χάρις κτλ,” 383-387.

12) Gerhard Friedrich, “χάρις κτλ,”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9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393.

13) Ibid., 394.

14) Ibid.

강하게 붙잡는다.¹⁵⁾

(3) 기타 신약 문헌에서의 χάρις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서신 속에서는 χάρις가 구원의 사건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표현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바울 이외의 신약저자들은 χάρις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을까?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칠십인경에 나타난 의미들과는 어떤 상관성과 차이들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χάρις가 사용된 기타 신약의 용례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가졌던 χάρις에 대한 관점의 차이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눅4:22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과 사람을 끄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χάρις를 사용한 것을 볼 때, χάρις는 어떤 특징인을 향해 호의와 은혜로운 돌봄 등과 같은 선을 강제적인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으로 행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눅2:40; 행14:26). 또한 χάρις는 인간 편에서 또는 하나님 편에서 호의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거나 또는 연결되는 문맥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행24:27; 25:9).¹⁶⁾ 이 밖에도 히브리서(히10:29; 13:25)에서 사용된 χάρις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대제사장직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은혜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호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다.¹⁷⁾ 또한 베드로전서2:19에서 강조된 χάρις는 ‘thankworthy’ ‘favor’의 의미를 가지고 한글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일’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¹⁸⁾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χάρις를 사용하였다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¹⁹⁾

15) Friedrich, "χάρις κτλ," 395-396.

16) Frederick William Danker, "χάρις," in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vol. 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79-1080.

17) Friedrich, "χάρις κτλ," 398.

18) 공동번역,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19) Friedrich, "χάρις κτλ," 398-399.

나. χαρίζομαι

χάρις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구체적인 은혜의 성향이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명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χαρίζομαι는 하나님 또는 사람들의 호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황들 속에서 사용되었다. 즉 χαρίζομαι는 바울서신들과 누가가 저자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는데, ‘호의로서 값없이 주다’, ‘용서하다’, ‘자신을 관대하게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바울서신과 누가에서의 기록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1) 바울서신에서의 χαρίζομαι

바울서신에서는 첫째, ‘호의로서 값없이 주다’라는 의미로 롬8:32; 고전2:12; 빌 1:29; 2:9; 몬22; 갈3:18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롬8:32에서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구원적인 상황 즉 케리그마의 설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용서하다’는 의미로는 고후2:7,10; 12:13; 엡4:32; 골2:13; 3:13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특히 골3:13에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해주신 것과 같이 공동체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들 서로가 “용서해준다”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처럼 당시에 χαρίζομαι로 사용된 용서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간에 얻어지는 것이었고, χαρίζομαι가 ‘용서하다’라는 요구의 상황에 사용될 때에는 그리스도가 용서를 해주는 모델 안에 기원한다.²¹⁾ 셋째, ‘자신을 관대하게 보여주다’라는 의미는 갈3:18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선물로 언약을 주셨다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다.

20) Walter Bauer, "χάρις," in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vol. 2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876-877.

21) Friedrich, "χάρις κτλ," 396-397.

(2) 기타 신약에서의 χαρίζομαι

χαρίζομαι는 누가에 의해 '호의로서 값없이 주다'라는 의미로 눅7:21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장님들을 보게 하시는 장면에서 사용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재판에서 호의를 나타내는 법적인 상황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행3:14에서는 바라바가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 대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행25:11에서는 바울이 베스도에 의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넘겨지는' 자신의 상황을 반박하는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행25:16에서는 베스도가 아그립바 왕에게 유대인들의 총독으로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바울을 '넘겨주는' 일을 반대하였던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행27:24에서는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넘겨주시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²²⁾

다. χαριτόω

χαριτόω는 '호의로서 값없이 주다', '용서하다', '자신을 관대하게 보여주다'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진 단어인 χαρίζομαι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χαριτόω는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나타내는 χάρις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표현한 에베소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해졌음을 알려주는 누가복음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울서신에서의 χαριτόω

엡1:6에서 χαριτόω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담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χαριτόω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수혜자에게 '축복하다' 또는 '크게 호의를 베풀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²³⁾ NIV와 NASB에서는 χαριτόω를 'freely given' 또는 'freely

22) Friedrich, "χάρις κτλ," 393.

bestowed'의 의미로 번역함으로 'freely'의 의미를 강조였고 한글 성경에서는²⁴⁾ '거저 주시는'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값없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데 χαριτόω가 사용되었다.

(2) 기타 신약에서의 χαριτόω

χαριτόω는 누가복음에서 '은혜를 보여주다' '축복하다'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χάρις와 연결해서 사용되었다.²⁵⁾ 예를 들어, χαριτόω는 눅1:28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언급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²⁶⁾ 속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χαριτόω는 '(하나님에 의해) 호의 또는 은혜를 받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그 의미가 한층 강화된 "은총을 '가득히' 받은"으로 번역되었다.

라. ἀχάριστοι

χάρις와 연관된 또 다른 단어는 '감사하지 않는' 또는 '은혜를 모르는'과 같이 χάρις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형태의 ἀχάριστοι이다. ἀχάριστοι은 앞에서 살펴본 χαρίζομαι와 χαριτόω같이 바울서신과 누가복음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울서신에서의 ἀχάριστοι

ἀχάριστοι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요, 목회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삶의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권면을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만 사용되었다. 딤후3:2에 나타난 ἀχάριστοι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딤후3:2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말세에 고통과 고난의 어려운

23) Friedrich, "χάρις κτλ," 393.

24) 공동번역,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25) Friedrich, "χάρις κτλ," 393.

26) 개역개정판

때가 이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다 자신들을 사랑하며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감사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ἀχάριστοι를 사용하였다.

(2) 기타 신약에서의 ἀχάριστοι

ἀχάριστοι는 바울서신을 제외한 신약에서는 누가가 기록한 눅6:35에서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과 감사하지 않는(ἀχάριστοι)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ἀχάριστοι는 특히 한글성경에서 “은혜를 모르는”으로 번역되었다.²⁷⁾ 특히 눅6:35에서 사용된 ἀχάριστοι는 바로 앞 절들인 32,33,34절에서 사용된 χάρις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32-34절에 사용된 χάρις는 NIV, NASB는 ‘credit’으로 KJV는 ‘thank’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한글 성경은 ‘칭찬받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은혜의 근원과 주체²⁸⁾

위에서 살펴본 언어적 측면에서의 은혜에 대한 용어들의 분석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또한 언어적 측면에서 분석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은혜의 근원과 주체를 살펴보면, 은혜의 대상인 성도들을 향해 은혜의 근원과 주체가 세 가지 특징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치신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등을 통하여 표현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공동번역,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28) J. D. G. Dunn은 바울이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은혜’(χάρις)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언제나 주도하셨다는 바울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J.D.G. Dunn, *바울신학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449.

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롬3:24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도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로운 자들로 인정을 하셨다고 선포한다. 고전2:12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한다. 고후6:1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면한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치신 은혜

갈1:6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부르실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후, 이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고후8:9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지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난 속에서 사역하신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자 함이었으며, 이처럼 예수님의 가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부요하게 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선포한다. 엡1:7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성도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바울은 롬1:7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칭하면서,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동시에 오는 것임을 알려준다. 특히 롬5:15과 17절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제시한다. 고후1:3에서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은혜에 대한 용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은혜의 주체이자 근원으로 동시에 언급하는 곳은 이외에도 고전1:3; 갈1:3; 엡1:2; 빌1:2; 딤후1:2; 딤후1:2; 딤후1:4; 몬1:3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3. 은혜의 목적과 기능

바울서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의 선포로 표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 고난과 죄의 속량으로 나타난다. 이는 바울서신에서 성도들을 향한 은혜의 근원과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시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바울서신에서 은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확인하는 바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목적을 가지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시 말해 성도들의 교회와 삶의 일터와 사회 현장 속에서 어떤 유효한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은혜의 목적

첫째, 하나님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통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던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이끌고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²⁹⁾ 바울이 롬5:2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게 도우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신

29) Dunn, *바울신학*, 449.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다.³⁰⁾

둘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획기적인 사건을 통하여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어떠한 변화들과 결과들이 일어났는가를 나타내 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한다.³¹⁾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 속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체험하게 된다. 엡1:6-7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고후8:9에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들이 부요하게 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

셋째, 은혜는 성도 각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 들어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준다.³²⁾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실하고 거룩함이 나타나야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고전15:10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히고, 고후6:1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

30) N. T. Wright는 롬6장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들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지금’ 그리고 ‘어곳에서’ 경험해야한다고 말한다. N. T. Wright,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HarperCollins, 2008), 248-249.

31) Dunn, *바울신학*, 449.

32) Ibid.

이 받지 말 것을 강조한다.

넷째, 은혜는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들을 사역의 다양한 현장과 사건들 속에서 감당함으로 성도들을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다.³³⁾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이루도록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각 자의 직분을 따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지체들과 교회들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의 은혜를 실천해야 한다. 롬1:5에서 바울은 자신이 담당하였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순종하도록 하는 사역이 사도의 직분을 위해 은혜로 받은 결과였음을, 엡3:2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 자신의 경험을, 롬12:3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

나. 은혜의 기능들³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성취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³⁵⁾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의 목적이 바울서신 속에서 다양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33) Dunn, *바울신학*, 449.

34) J. D. G. Dunn은 ‘은혜’를 나타내는 헬라어 ‘χάρις’가 바울서신에서는 100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바울 서신을 제외한 신약에서 55회 사용되었을 만큼 바울 서신을 분명하게 특징지어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복음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바울 신학 전체를 분명하게 특징짓고 있다고 강조한다. Dunn, *바울신학*, 449.

35) N. T. Wright는 고전1장을 근거로, 은혜로 인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풍족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새로운 생활에 관한 성도들의 지식이 간절함과 함께 커져가고, 서로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증거인 복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된다고 강조한다. N. T. Wright, *Paul for Everyone: 1 Corinthian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04), 4.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나타나며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함

(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룸

롬5:21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선포한다. 롬3:24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선포한다. 갈2:21에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갈5:4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엡2:5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다.

(나) 죄로부터 성도들을 ‘지금’도 보호함

롬11:5-6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현재’에도 변함없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지키신다고 설명한다.³⁶⁾ 롬5:20은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

36) 바울은 자신의 사역 현장 속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은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바울은 과거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직면하였던 ‘신앙의 위기’는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 ‘종말론’적인 위기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를 하셨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잘 준수하였느냐에 결정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가 만연한 곳에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셨다고 증거한다. 롬6:14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들은 죄가 그들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도록, 죄가 그들을 주장할 수 없도록,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죄를 억제한다. 롬6:1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죄에 거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은 은혜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2)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소망과 함께 사랑을 누리게 함

(가) 믿음 안에 서 있도록 도우심

딤후2:11-12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위함이라고 선포한다. 딤후3:7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롬16:20에서는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킴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탄의 계락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발 밑에 굴복시키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내리시도록 선포함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은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롬12:3은 은혜를 통하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다.

되지 않고,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J. D. G. Dunn, *WBC 성경주석 로마서 9-16*, Vol. 38하 (*Word Biblical Commentary Romans 9-16*, Vol. 38B), 김철,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5), 230-231.

(나) 소망과 함께 사랑을 누리게 함

딤후1:14에서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꾀망하며 박해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사랑이 풍성히 주어졌다고 고백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풍성히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다. 롬5:2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영광이 될 것임을 소망하게 하신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들이 완성될 것을 크게 자랑하며 최고로 기뻐하는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³⁷⁾

(3)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찬송, 감사, 기쁨이 넘치도록 변화시킴

(가) 선한 말

엡4:29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남을 해하는 나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성도로서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선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함으로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타내라고 말한다. 골4:6은 성도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함으로써, 질문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절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37) 바울서신에서 은혜는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과 실재적이면서 구체적인 교제와 행위를 현재 이루고 계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한수, “은혜의 우선성: 바울에 있어서 은혜 개념과 그 의의,” *신학지남* 72:5 (2005년), 113.

(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

고후1:12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처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양심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자랑임을 말하고 있다.

(다)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게 함

엡1:6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기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하기 위함이다. 또한 엡1:7에서는 찬송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함

고후4:15은 바울이 겪은 모든 믿음의 마음과 행동들이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고후12:9에서 자신의 능력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한 자 안에서 온전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함

골1:6은 성도들이 복음 전리의 말씀들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깨닫게 됨으로,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고 말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좋은 소식인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며 자라나는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성장하며, 결실을 맺게 된다.

(4) 사명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게 함

(가) 사명을 깨달음

엡3:2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도들을 위해 주신 직분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성도들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한다. 롬1:5,7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은혜를 입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한다. 고전15:10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더 많은 사역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셨다고 말한다. 고후6:1-2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구원을 얻도록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며, 바로 이 구원이 오늘 지금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갈1:6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갈1:15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세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엡3:7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기인하였으며, 바울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에 따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딤후1:9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게 함

엡4:7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한다. 롬5:15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

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롬12:6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지체로서 각자에게 은혜를 통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지체들을 권면함

롬15:15-16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다고 말한다. 고전3:10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혜롭고 능숙한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한다. 엡2:7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선포한다. 또한 엡2:8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성도들에게서 난 것이나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린다. 엡3:8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하고 풍성한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함

빌1:7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풀려났을 때에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함께 고생을 한 자들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였다고 말한다.³⁸⁾ 빌1:29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한다. 골4:18에서 바울은 골

38) 빌1:7은 바울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과 함께 교통하며 염려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표현을 담으면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Robert P. Lightner, *두란노 강해주석시리즈 26: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Colossians)*, 정민영, 허미순, 김윤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3), 163.

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인사말을 써서 문안하면서,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면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마) 소망과 위로를 주심

살후2:16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신다.³⁹⁾ 특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은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선한 일들과 말들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5) 헌금을 통한 구제와 섬김

(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실천하게 함

고후8:9에서는 구제 헌금의 근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한 자기비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가난하게 되심으로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신 것에서 연보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지는 섬김을 실천해야만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들을 돕는 연보를 통해 그리

39) 바울은 살후2:16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승리의 약속,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등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성도들은 현재에도 미래의 위로와 소망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도들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망을 가짐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William Hendriksen, *헨드릭슨 성경주석 데살로니가전후서 (Exposition of I and II Thessalonians)*, 김용섭 역 (서울: 아가페, 1984), 266-267.

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가를 나타내야한다.

(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의 적용으로서의 헌금 40)

고전16:3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연보를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고후8:1절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지체들을 위해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바울은 고후8:4에서 자원하는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며, 은혜를 받은 지역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즉 구제를 특권이라고 정의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연보에 참여하기를 바울에게 간절히 간구하였다고 말한다. 바울은 고후8:6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진 연보를 성취하도록 권면하였고, 이를 위해 고후8:7에서는 성도들이 믿음, 언변, 지식, 간절함,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들에 뛰어나며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연보의 일에도 넘치도록 함께 할 것을 권면한다. 고후9:8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성도들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겨 내는 자로 성도를 섬기는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4. 은혜의 신학적, 실천적 의의

앞에서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은혜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믿음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인격에 영향을 끼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사역의 현장 속에서

40) 황진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연보’(헌금)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첫열매’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를 섬기는 ‘연보’와 은혜의 용어인 ‘ χάρις ’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은 연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자유로운 의지에서 드러진 헌금은 축복을 의미하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신 신16:17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관대하게 줄 것을 격려할 때, 축복을 심는 자는 축복을 거두리라는 말로 격려하였다고 말한다. 특히 황진기는 관대하게 주는 자에 의해서 누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강조하기 위하여 언급한 시111편이 유월절 절기에 불러진 할렐 시편이라고 말한다. Jin K. Hwang, "Jewish Pilgrim Festivals and Calendar in Paul's Ministry with the Gentile Churches," *Tyndale Bulletin* 64:1 (2013), 104-105.

은혜의 선물인 다양한 은사를 통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은혜의 목적과 기능을 통해 발견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여기서는 바울 서신 속에서 사용된 은혜의 용례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할 실천적인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은혜의 신학적, 실천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됨을 알려준다.

둘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행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모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다양한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사명을 통하여 교회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은사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직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넷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가는 지체들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함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도록 이끈다.

제 2 절 은혜의 수여자이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

앞에서 본 논문은 바울서신에서 사용된 “은혜”의 용어들이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은혜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은혜의 근원과 주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은혜의 목적과 기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는 다양한 역할들 또는 기능들을 알아보았다. ‘은혜의 신학적, 실천적 의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 나타내는 은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과 그 목적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 성도들의 삶 속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은혜를 대행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요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인자 또는 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해 바울서신에서 등장하는 용어인 ‘은혜’의 용례들에서 나타난 상황들과 문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그리스도의 정체성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가르침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바울 서신 속에 표현하였다.⁴¹⁾ 본 절에서는 은혜의 근원과 대행자로서의 그리스

41) Gordon D. Fee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지식으로 갈4:4, 살전2:14-15, 빌2:7절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으로는 살전4:15; 갈4:6, 롬8:16, 고전7:10, 고전9:14절들을 제시한다. Gordon D. Fee, *바울의 기독교론: 목회적 감각의 해석학적-신학적 연구 (Pauline Christology: An Exegetical-Theological Study)*,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도,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 (인자) 등과 같은 주제들을 통해 바울 서신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은혜의 근원이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

은혜의 근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롬1:7; 롬5:15,17; 고후1:2뿐만 아니라, 고전1:3; 갈1:3; 엡1:2; 빌1:2; 딤후1:2 딤후1:4; 몬1:3에서 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언급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바울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은혜의 근원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의 대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실제로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직접 행하심으로써 은혜의 근원이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셨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의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선포한다(롬3:24).

나. 하나님의 아들 / 상속자 / 하나님의 대권의 대행자

바울서신에서 χάρις는 구원 사건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⁴²⁾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구원을 인식하게

2009), 768-772.

42) 구원사건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의미는 고후4:15에서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개역개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C.K. Barrett, *국제성서주석 고린도후서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되면서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셔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⁴³⁾ 롬1:2-5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되어왔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 특히 롬1:3-4에서 바울은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한다(롬8:3, 갈4:4).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성취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토라(율법)에 얽매어 살지 말 것을 알려준다.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토라에 의하여 온 인류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예수님이 토라의 지혜를 대신하는 참 지혜요, 토라의 마침으로서 하나님의 참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이심을 알려주셨다(마5:17-19, 롬13:9-10).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1986), 192.

43) Dunn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아케다(결박) 전승을 바울이 알고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특히 롬8:32은 바울이 창22:16을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Dunn, *바울신학*, 329.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종된 삶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알려 주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는 수단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यो, 이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것이다.

다. 둘째 아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이 범 죄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제2의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첫 아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한다.⁴⁴⁾ 특히 바울은 고전15:21-22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비를 통하여 아담의 죄로 인한 인류의 죽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부활의 은혜의 확실성을 비교시킨다. 즉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비를 통하여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 모든 인간은 죽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담과 같은 인간으로서 죽음에 동일하게 참여하셔야 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성육하신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다.⁴⁵⁾

한편 바울은 고전15:44-49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으로, 아담을 “생령”으로 설명함으로써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비를 강하게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에 주목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의 천지창조 사역에 대한 종말론적인 역할을 담당시키고 계신다. 이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생령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생령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첫째 아담과

44) Dunn, *바울신학*, 533.

45) Fee, *바울의 기독교론: 목회적 감각의 해석학적-신학적 연구*, 197-199.

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받지 못한 생명을 새로운 삶의 변화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생명의 수여자'가 되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과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수여하는 은혜의 수여자가 되셨음을 알려준다.

라. 주 (인자)

'주(인자)' 기독교론과 '은혜' 개념과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사건을 통해 나타내는 반응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감사'의 표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⁴⁶⁾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여되는 승리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인자' 또는 '그 사람의 아들'이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지만⁴⁷⁾,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권위를 받으셨다고 주장하셨다.⁴⁸⁾ 특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은혜에 대해 선포한다(빌2:5-11). 즉 종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름 즉 '주(ku,rioj, 야웨)'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46) 롬7:25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표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이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전15:57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

47) 김세윤, "그 '사람의 아들' (인자)-하나님의 아들 (서울: 엠마오, 1992), 142.

48) Ibid., 139.

높이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다.⁴⁹⁾ 또한 바울은 롬10:9-10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써 의에 이름을 입으로 시인할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ku,rioj 즉 주로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은혜의 대행자가 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하여금 사탄과의 전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하여 승리함으로써 선택하고 참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끄시는 주님이 되신 것이다.⁵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기심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예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주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통치를 따라 온 우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다.

4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90.

50) Ibid., 195-197.

2. 은혜의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

가. 은혜 수여의 표현으로서의 자기비하⁵¹⁾

은혜의 목적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서신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현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현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다.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와 삶을 통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여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바울은 빌2:6-8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하지 않으셨다고 선언한다. 즉 예수님은 종의 형체 즉 종의 신분을 스스로 취함으로써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는 자기를 비우는 은혜를 보여주셨다. 또한 빌2:6-8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서 선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성육신을 통하여 진정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비하를 통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보여주시기 위해,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면서 온전하게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의 은혜를 받은 진정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다.⁵²⁾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시는 자기비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도록 은혜를 수여하시는 은혜의 대행자 이심을 보여주셨다.

51) Fee, *바울의 기독론*, 772-776.

52) Ibid., 772.

나. 은혜 수여의 표현으로서의 십자가 죽음⁵³⁾

바울서신에서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바울의 설명은 죄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 죽음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실행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딤후2:5과 3:16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다고 말한다. 즉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할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죄에는 굴복하지 않으심으로 죄를 속하는 속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또한 바울은 고후5:21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실제 경험하는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선포한다.⁵⁴⁾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난 은혜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화해와 중보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선택되었지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비밀로서 남아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오직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성취를 믿어야함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셨다.

53) Fee, *바울의 기독론*, 772-776.

54) Ibid.

제 3 절 은혜의 수혜자이자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수여자 이면서도, 대행자로서 자신을 비우고 종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사명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인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은혜의 통로로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며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바울서신 속에 나타난 기록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기초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와 사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 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하나님의 /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

(1)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새로운 피조물(고후5:17) 또는 새 인류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써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⁵⁵⁾ 즉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운 신분을 얻는 은혜의 수혜자인 것이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임을 알 것을 강조한다(빌3:6-9).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의 의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얻는 것이다(롬3:21-26).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믿음으로 응답할 때 나타나게 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롬1:16).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율법의 저주 받으심이 이제 그들의 죄를 향한 정죄 받음이 되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효력이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자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구원의 현재 사건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한다. 즉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한 종말의

55)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몰아간 힘은 회심을 통한 소명의 종말론적 영성이었고, 바울의 선교와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의 체험,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장상, “바울신학과 영성,”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위 신학세미나 강의집* 14 (1994년), 111- 115.

때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왔으며, 은혜의 때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 죄인을 향한 의인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갈4:4; 고후6:2),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며,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보장되었음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한다.

(2) 하나님의 형상 / 자녀 / 상속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설명한다. 먼저, 바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지배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것을 선포한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함으로써(고후4:6),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수혜 받은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의 아담과는 달리 참된 신적 형상을 통해 완전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같이,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 갈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⁵⁶⁾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십자가 복음의

56) Fee, *바울의 기독론*, 199-205.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아들’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에게 미친 결과를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던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율법의 정죄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⁵⁷⁾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던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시게 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즉 율법으로 인하여 죄의 종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게 되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이지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 살게 된다고 말한다.⁵⁸⁾ 즉 로마서에서

57) 김세윤은 갈4:1-7과 롬8:14-23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 1995), 527.

58) 김세윤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복음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흑암

바울이 밝혔듯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⁵⁹⁾. 이러한 새 사람으로의 변화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체화된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⁶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후3:18). 그때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빌3:10).

나. 은혜의 통로: 화해의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화목과 화해의 직책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고후8:1에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였

의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도 자신들이 ‘속사람’ 또는 ‘새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요한다.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537.

59)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제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셨다고 강조한다(롬8:29).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메시아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약속하셨다. 첫 아담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고, 마지막 아담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다.

60) 고후6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점검함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 스스로를 시험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자신이 성도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연경, “바울서신에 나타난 구원의 확신,” *신학지평* 23:1 (2010년), 250.

고, 4절에서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다고 밝힌다. 바울은 롬6:1-3에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바울이 롬6:14에서 강조한 것처럼 죄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함으로 화목과 화해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전제조건이다.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도 이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인하여 인류뿐만 아니라 만물과의 화목 또한 가능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케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넘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골1:20).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피조물과의 화목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루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먼저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구체적으로 감당할 것을 요청한다(고후5:18-19).⁶¹⁾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화목은 인간의 반응 즉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을 반대하며, 핍박하던 바울의 과거의 죄와 행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을 인류에게 선포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즉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이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도록 선포하는 사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61) 김세윤은 묵시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의 종말론적인 계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종말론적인 계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471.

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나라 /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 대신 지켜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과 삶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면서, 특히 갈6:2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지체들의 실수를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고 지체들과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서로 나눔으로써, 짐을 진 지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강조한다.⁶²⁾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요13:34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는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괴로워하며,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말씀하셨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죄에서 벗어나 올바른 자리를 잡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보여주신 원리로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롬8:2)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빌2:5,8),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⁶³⁾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요구된다. 즉 죄를 범한 지체들에게 율법주의처럼 교만에서 나오는 비판과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죄를 범한 지체들이 아픔과 절망으로 인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이끄는 것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다시 회복할

62) 박정근,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가 2* (서울: 누가, 2002), 149.

63) 김창선, *복음의 진리를 위한 사도바울의 투쟁* (서울: 한국성서학, 2007), 244-245.

수 있도록 돕는 복음주의의 자세를 말한다.⁶⁴⁾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 또는 지체들 간의 분쟁과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과 판단이 아닌 궁핍에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먼저 되돌아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역 현장과 십자가 도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 섬김과 순종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의 기능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의 사명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보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의 예배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공동체 건설자, 이웃사랑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제자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 박정근,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가* 2, 150-155.

가. 그리스도의 사역 계승 (보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체험을 통해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통해 깨달은 후, 바울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요청한다. 특히 바울은 부르심에 관한 소명을 계시와 연관시키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구약 말씀 속에 나타난 (사49:1-6과 사6장) 야웨의 종의 소명 기사로 바라보았고,⁶⁵⁾ 자신의 사명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선포하였다(고전15:3-4).⁶⁶⁾

따라서 바울은 은혜의 수혜자요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이어가도록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선포한다(고전4:1). 이처럼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셨던 비밀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나갔다(엡3:9).

65) 김세윤은 바울이 다메섹 계시를 이해할 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주되신 야웨를 보았을 때, 사용된 구약의 하나님의 칭호 *ku,rioj*(주)를 부활하고 높임받은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바울과 이사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죄사함과 속죄를 받았다는 것,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았다는 것,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들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한다.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151-152.

66) 고전15:4에 나오는 "성경"은 호세아6:1-2과 요나서1:17-2:2를 염두에 둔 것이 유력하다. Dunn, *바울신학*, 345.

나. 복음의 전달자⁶⁷⁾ (그리스도의 말씀)

고전15:10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자신이 사도로서 주어진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롬1:5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달하는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로마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갈 1:15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롬15:16에서는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 또는 일꾼이 되었으며,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말한다. 끝으로 바울은 고후 1:12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로서 바울 자신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며, 세상적인 지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으며, 바울 자신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다.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델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일까?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를 통해 예배하는 삶,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의 예배자,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의 예배자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67)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인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죽음의 사건, 부활하신 주님 등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였고,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해석된 계시였다.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115-116.

(1)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통해 예배하는 삶⁶⁸⁾

사도 바울이 롬5:2에서 고백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연약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아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종말론의 구원과 심판을 약속하셨다. 특히 바울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소망과 기쁨의 은혜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사실은 유대 묵시문학에 나오는 환상들과는 전혀 달랐다. 즉 종말론적 계시에 대한 예언으로만 끝나는 환상과 같은 유대 묵시문학과는 달리, 바울의 복음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은 종말에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의 빛진 자로서 달려갔던 것이다.⁶⁹⁾

바울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를 종말론적인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선포한다. J.D.G. Dunn은 이러한 “종말론적 현재”(but now)의 표현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다양한 서신서들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롬3:21).⁷⁰⁾ 즉 바울의 고백인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고, 종말론적인 새로움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바울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일어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사건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재림의 임박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에 대한 확고한 종말론적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¹⁾

68) 바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사역의 삶을 결정하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참된 영적리더의 삶을 살았다. 심상범, *바울의 영성: 떨림(십자가), 울림(율리), 어울림(공동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02.

69)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121.

70) Dunn, *바울신학*, 272.

71) Ibid., 628.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완전한 종말론적 구원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 종말론적인 부활의 약속을 받았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현실 속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사모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미 도래한 하나님나라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전 세계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복음의 종말론적 긴장과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의 예배자

(가)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헌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의를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던 바울 자신의 삶을 “예수님은 주이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열정의 뿌리가 되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이 말고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전2:2). 이는 바울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깨달았음을 담고 있다. 특히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신13,17,18장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법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는 신21:23의 말씀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예수는 거짓 메시아라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반박하였다.⁷²⁾ 이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최고의 가치

72)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순교당한 참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법을 기록한 신명기13장과 17-18장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였다고 알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라지기를 원하였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삼는다.⁷³⁾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바울의 화려한 배경과 명예는 바울 자신에게 배설물로 여겨졌으며,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다(갈6:14).

(나) 성령의 인도에 순종

십자가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헌신은 바울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었다(고전12:3).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해방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롬8:2).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부활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졌다. 특히 바울은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강조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후1:21-22).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며, 이미 얻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찬송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엡1:14).⁷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신21:23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죽은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패하기를 원했다.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42-43.

73)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나 사역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삼았다. 따라서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상범, *바울의 영성: 떨림(십자가), 울림(윤리), 어울림(공동체)*, 342.

74) Gordon D. Fee는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은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갈5:22-23절에서 제시된 성령의 열매는 갈5:19-21에서 바울이 표현했던 육체에 관련된 일들과 같이 대표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전부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삶 전체가 성령의 사역이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삶의 태도, 덕목, 행동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Gordon D. Fee,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길성남 역 (서울: 좋은 씨앗, 1996), 159-60.

라. 공동체 건설자 (성령의 은사들)

바울서신에서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는다. 은혜의 목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삶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구제와 섬김을 통해 공동체 건설자를 위한 사명자로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경험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목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사명자로 세워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으며,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팀 사역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며 융통성과 배려, 감사와 격려를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역한 바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바울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울 때, 궁극적인 목표로 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현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롬12:1-2). 이를 위해 바울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도록 도우신다고 강조하였고(고전6:10-11),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몸을 사용하지 말고,⁷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75)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육체에 탐닉하여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Richard S. Ascough and Charles A. Cotton, *Passionate Visionary* (Peabody, MA: Hendrickson, 2006), 101.

에베자의 삶을 선포하였다(롬12:1).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히 이룸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권면에 잘 나타났다(엡4:13). 즉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은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은사를 받았기에 성령의 은사를 육체적으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사랑을 나타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예배, 즉 은혜를 전달하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에서 성도들은 부부가 서로 기도할 틈을 주기 위하여 분방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고전7:5),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순종하여 육체를 좇는 일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지체들의 약한 양심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선포하기도 하였다(고전8장).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에서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성령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나타나게 된다(고전12-14장).

(2) 고난과 위기를 통해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 있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⁷⁶⁾ 바울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보여주었

던 열정적인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통해 깨닫게 된 산물이었다. 바울은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며 애쓸 것을 당부하면서(살후3:7-8), 자신은 사도로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기 양식을 준비하였다. 또한 바울은 고난받는 지체들을 향하여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라고 선포하면서(살전4:13-18),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살전5:2-6). 성도들은 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쫓겨나 있을 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밖에 바울은 교회 지체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될 것을 강조하며,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룰 것을 권면하였다(살전5:1-11). 바울의 이러한 사역 모습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신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살후1장).

한편 바울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고난 속에 담겨져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고백한다. 일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길,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졌다고 선포하였다.⁷⁶⁾ 즉 바울은 자신이 투옥되었지만, 공동체의 지체들이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빌1:12-13). 이 밖에 바울은 복음 전파로 인하여 받게 된 고난으로 지체들과 두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복음 전파에 유익하였다고 증거하기도 하였다(빌1:12).⁷⁸⁾

76) J.D.G. Dunn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unn, *바울신학*, 652.

77) 바울은 복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 하였다. 즉 복음의 리더십은 바울에게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도구였고, 복음으로써 바울은 교회공동체를 성장시켰다. Ascough and Cotton, *Passionate Visionary*, 34.

78)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희망이 담겨 있음을 알았기에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의 자유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다. Jeff Caliguire, *사도 바울의 리더십 비밀 (Leadership Secrets of Saint*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을 향한 시기와 다름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였다(빌1:17-18). 즉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다툼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빌1:12-18).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발전과 신앙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난은 바울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공동체가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빌1:27-30). 결국 바울에게 고난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요, 공동체들이 깨어있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마. 제자도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주권)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만 제한시키지 않았다.⁷⁹⁾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은혜를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데까지 확대시켰고, 이를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중보기도’, ‘공동체 문화’,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사역을 하였다.

(1) 중보기도⁸⁰⁾

바울의 중보기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복음의 비밀이 성도들 사이에서 담대히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로서의 바울의

Paul),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43-146.

79)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모범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격리와 도피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선교적 자세를 갖추 것을 요구하였다. 김세운,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7), 136.

80) Alan은 크리스천 리더는 기도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영적인 크리스천 리더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리더의 기질이 앞서서 일을 해결하려는 강한 성향 때문인데, 자기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고 말한다. Alan E. Nelson, *시대가 원하는 영성리더십 (Spirituality & Leadership: Harnessing the Wisdom, Guidance, and Power of the Soul)*, 이장우 역 (서울: 누가, 2004), 87.

마음이 담겨있었다(엡6:18-20). 즉 바울은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에 빠져있는 세속화된 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러한 바울의 중보기도에는 바울이 섬기는 목회 현장의 공동체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회와 문화를 통해 나타날 풍성한 의의 열매, 신실한 삶, 흠이 없는 삶의 증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빌1:9-11).

바울의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의 요청 속에서도 나타났다.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사역에 진보가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중보기도의 요청을 서신서에 기록하였다(롬 15:30-33). 또한 바울은 지체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서도 일어날 것을 간구하였다(살후3:1-3). 이외에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며,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빌립보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였다(빌1:19, 골4:3).

이처럼 중보 기도는 제자로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려는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도구였다(고후1:11).

(2) 공동체 문화 형성⁸¹⁾

바울은 중보기도와 함께 사회와 문화를 복음으로써 변화시킴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문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

81) 김덕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강한 자기 동기 부여, 변화에 나타나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 문화의 전제와 기능 등을 잘 분석하여 더 나은 문화로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구성원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요약한다. 김덕수, *리더십 다이아몬드: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적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8), 284-85.

이 이방 헬라인이든 정통 유대인이든,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든, 남녀 구분 할 것 없이 모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업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였다(갈3:28-29).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성도들이 받았던 바울의 복음 선포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편지의 가르침을 따라 굳건하게 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 것을 당부하였다(살후2:14-15).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성도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고, 세상 밖에 홀로 떨어져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⁸²⁾.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 술 취함이 있다면, 이들의 경우에는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전5:9-13). 바울은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지체들이 공동체 내에서 누룩 없는 자와 같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전5:7-8).

바울은 특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대비를 통해 구체적인 공동체 문화의 모습들을 제시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취함, 방탕함인데(갈5:16-21), 공동체가 육체의 일을 피해야 할 이유는 육체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나게 된다(갈5:22-24). 따라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갈 때, 사회와 문화를 그리스도의 주권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82)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이중계명(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164.

(3) 네트워킹

바울은 은혜를 전달하는 제자도의 사역이 주변의 공동체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이름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바울은 여러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던 디도를 고린도교회에 파송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바울은 자신과 같이 고린도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넘치고,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신의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교회에 보냄으로 성도들이 현금 모금으로 인하여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였다(고후8:16-23).

제자도를 이루는 바울의 네트워킹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났다.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던 자매 뵤뵤, 아시아에서 바울의 선교로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청지기 에라스도 등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요청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였다(롬16:1-16).

제 4 절 소결론

본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혜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들의 구원의 사건을 현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어,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우신다. 특히 은혜를 받는 수혜자이면서, 은혜의 대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인자)로서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명을 이루셨다.

이와 함께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삶 속에서 예배하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하며 자신의 삶의 영역을 뛰어 넘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바울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어나갔으며, 자신이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 교회들과 함께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제 3 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첫째, 교리 자체의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교리지상주의, 둘째, 내세 중심 또는 현세 중심의 구원과 같은 편협한 구원의 이해,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 넷째, 개교회 중심 또는 성장 중심 사역,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의 부재, 다섯째, 세상 가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함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세속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한국교회의 실제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의 5가지 오해와 실천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제2장에서 살펴본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바울이 이해하고 실천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중요성을 통해 실제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은혜의 통전성에 기반한 평신도 양육과 사역모텔이 한국교회의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어떠한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의 당위성을 일깨워줄 것이다.

제 1 절 교리지상주의

교리란 “한 종교의 기본 이론.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의미한다.⁸³⁾ 교리에 관한 사전적 정의는 교리가 해당 종교의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 신앙적 체계를 통해 종교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박화경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왜곡된 모습들은 개인의 감정적인 경험을 통한 회심의 체험을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은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 또는 교리의 양육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⁴⁾

그러나 2005년에 한 기독교 언론매체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장로교 고신 측의 고려신학대학원에 재직 중이던 교수들 사이에서 교리를 둘러싼 치열한 신학적 갈등과 논쟁에 대해 보도하였다.⁸⁵⁾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었던 최덕성 교수와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성구 교수는 교회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사도신경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둘러싸고, 신학 논쟁을 벌였다. 이성구 교수는 교리는 인간이 만든 부산물 또는 결과물로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에,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교리가 완벽하다면 한번 결정된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최덕성 교수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경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서, 장차 교단의 정체성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렇다면 최덕성 교수의 주장과 같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고백서들의 가치와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

83) “교리,” 다음사전. Online: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24940&q=%EA%B5%90%EB%A6%AC> (2013년 6월 15일 인용).

84) 박화경, “한국교회교육의 변화를 위한 과제들,” *기독교교육논총* 27 (2011): 64-65.

85) “친숙한 교회연합, 신학적 해석이 끝난 주제인가,” *뉴스앤조이* (2005년 11월 23일). Online: <http://cafe.daum.net/tknewsnjoy/NUiU/324?docid=338119959&q>.

게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당시 그의 교회에 잘못된 은혜에 대한 교리의 오해를 지적하면서, 은혜에 대한 교리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신격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였다.⁸⁶⁾ 즉 은혜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리의 문자적 의미를 하나님과 같이 맹신하게 되거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것처럼 간주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통해 고백되었던 루터의 이 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것을 요구한다. 결국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와 그 변화들을 사역현장과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고 교리의 단면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교회요, 성도로 자부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류장현 교수 역시 오늘날 한국교회의 과제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전해진 신학적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무관심하거나 복음을 개인의 영혼구원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신학적 주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는 교리는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⁸⁷⁾

따라서 교리, 즉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교리는 성경 속에서 제시하는 말씀의 가르침과 배경에 바탕을 두고, 실제적인 사역 현장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와 성도들이 원래 의도했던 상황 속에서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해야만 하는 것이다.

86) Eberhard Bethge,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233-234.

87) “종교개혁신학, 정신은 계승하되 교리화는 주의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11월 16일) Online: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379>.

제 2 절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

1. 개인과 사회의 분리

박종렬 목사는 개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강조한 한국교회의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인해 성도 개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성도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⁸⁸⁾ 특히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개인 구원과 개교회 중심의 구원에 힘쓰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수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범위는 개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는 교회의 가르침 즉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하여, 성도 개개인이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비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분리되는 모습을 향해 자신들만 위한다는 이기주의자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시영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회를 향한 진실한 섬김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사회로부터 교회의 공공성 시비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⁸⁹⁾ 실제로 기업의 CEO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주변에서는 환경 단체들이 시위를 하거나 교회의 주차 문제와 건축 문제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교회를 상대로 항의하는 일들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게 되었다.⁹⁰⁾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개인적인 구원에 모든 의미와 절대 가치를 두는 편협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자리를 잡고 있다.⁹¹⁾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에 무관심한 구원관을 세운 성도들은 그

88) 박종렬, “구원과 종말,”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2 (1992), 16.

89) 문시영, “섬김과 나눔, 교회의 윤리로!,”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202.

90) Ibid.

91) N. T. Wright는 빌레몬서 안에는 예수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 유기적으

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삶과는 정반대의 상황인 세속적인 성공, 권력, 그리고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요, 결과라는 오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의 열매들을 사회생활 속에서 증거해야 하는 일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옥한흠 목사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설명하는 글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 즉 은혜의 능력이 빨리 사라지거나,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⁹²⁾

2. 내세 중심 또는 현세 중심의 편향된 구원 이해

가. 시한부 종말론: 내세를 강조하는 구원 이해

한국교회 중에서 복음주의적 입장을 가진 보수 교회들은 성도 개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써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도록 오랫동안 노력해왔다.⁹³⁾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성경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세의 개혁과 변화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처럼 현세의 문제들을 위로하고, 내세 중심의 구원에 치우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시한부 종말론’ 주의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시한부 종말론은 도덕성의 위기와 사회구조의 급속한 약화로 인하여 공동체가 위협에 빠졌을 때, 이 결과로 구성원들이 안전을 잃어버리게 될 때 출현하게 된다.⁹⁴⁾ 시한부 종말론 주의자들은 현 사회와 자신과 다른 신앙관을 가지는 사람들을 비판적

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교회론 즉,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비전 안에서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내용이 바울의 핵심 주장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구원론은 단순히 개인구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안에 거하는 공동체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N. T. Wrigh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vol. 1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3), 38.

9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99-114

93) 이복수, “사회활동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와 선교,” 123.

94) 김성건, “종말론 대두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5 (1992년), 114.

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 새로운 완전한 질서를 꿈꾼다. 시한부 종말론 주의자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질서는 현재에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와 같은 곳이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은 사회 정치 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연약해질 때, 경제 체제의 부정직과 부정에서 비롯된 돈과 같은 물질의 소유에 대한 강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때, 환경의 오염과 대중사회의 향락주의로 인한 심각한 사회 갈등 등을 통해 등장한다.⁹⁵⁾

따라서 지나친 내세 중심의 구원 이해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에 모든 신앙의 목적을 두고 죽음 뒤에 오게 되는 구원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현재 삶에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듦으로 주변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나. 변영 신학과 기복 신앙: 현세를 강조하는 구원 이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내세 중심의 구원 이해와는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에 구원의 절대적인 의미를 두는 현세 중심의 구원의 이해에 대한 예를 변영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⁹⁶⁾ 김의환 교수는 대다수의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영적인 성장이 침체되고 교회성장이 둔화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이유를 현재 중심의 신학인 변영신학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⁹⁷⁾ 변영신학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영성의 기준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영성의 잣대를 삼는다. 이처럼 영성과 물질에 대한 잘못된 연결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현세의 번영을 최고의 신앙의 모델로 오해하도록 만든다.

한국교회가 변영신학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과거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 불안

95) 김성건, “종말론 대두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115-117.

96) 변영신학은 현세를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땅을 떠나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믿음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현세의 축복과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97) 김의환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에 둔화가 일어난 원인을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에게서 나타난 영적인 침체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며, 이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변영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세속화에 기반한 교회 성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한다. 김의환, “한국교회의 성장둔화와 변영신학,” *신학지남* 65 (1998년), 11-16.

등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으면 잘된다는 변영신학의 주된 선전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당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가야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서서히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를 낳았다. 이로 인해 물질주의가 유행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단지 교회 건물의 규모와 상태를 보고 성공한 교회요,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변영신학은 왜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도들이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변영신학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음에 따라, 변영신학을 따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의 고난과 인내를 무시하게 되었다.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속에 자리잡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참다운 의미가 왜곡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변영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한 전적 타락이 사라지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들의 삶은 성공할 것이라는 오해를 한국교회에 남기게 되었다.

변영신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편협한 현세 중심의 구원 이해는 기복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복신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세 속에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와 은혜를 받은 증거로 믿는 인식 속에서 출발한다. 송인규 교수는 한국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로 기복 신앙을 언급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세 속에서 건강과 경제적인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실현적인 목표를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으로 믿는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⁹⁸⁾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의 삶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지만, 기복신앙은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물질적

98) 송인규 교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인 기복 신앙이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자기실현의 수단으로서 외적인 교회 성장 또는 사역의 필요라는 명목을 통해 교묘하게 이용되었다고 비판한다. 송인규, “한국교회의 3대 과제,”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254.

인 것에 모든 가치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⁹⁹⁾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교제의 기쁨과 삶 속에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사모해야하지만, 기복신앙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없기에 현세 속에서의 물질적인 풍요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오해되고 있다.

제 3 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

분회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는 마치 까마귀가 ‘싸구려 은혜’인 시체 주변에서 그 시체에서 나오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¹⁰⁰⁾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의 원인은 ‘값싼 은혜’로서,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철저한 뉘우침의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단순한 용서를 선포하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¹⁰¹⁾ 이처럼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교역자나 전문 사역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영역이라 생각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의 헌신은 교역자나 전문 사역자와 같은 특정한 계층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요구된다고 오해하고 있다.¹⁰²⁾ 즉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인 현대 사회는

99) 송인규, “한국교회의 3대 과제,” 254.

100) Bethge, *디트리히 분회파*, 233-234.

101) Ibid., 231.

102) 옥한흠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오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신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인생 전반에 걸친 여정 속에서 최종적인 목표로 삼

도시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구조로 인하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은혜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시대에 맞지 않는 특정한 곳에서나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뿌리인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에 선교적 사명이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¹⁰³⁾ 이처럼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따르며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헌신을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고용수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학교 교육의 위기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교육을 통해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 간의 관계성을 개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인 독단주의라는 문제가 일어났다고 지적한다.¹⁰⁴⁾ 교회의 신앙 교육이 세상 속에서의 학교 교육과 같이 현장이 동반되지 않고 교실 내에서 형식에 매여 있어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진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만 키우는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다.¹⁰⁵⁾ 즉 전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삶이 말씀과 분리되는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본회파의 주장과 같이 값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야 하며,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을 사역 전반에 걸쳐 성도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사역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개정2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122.

103)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부 평신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사례를 들어, 개신교의 역사적 전통은 선교적 사명보다는 개인의 믿음과 교회 질서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타적인 신앙관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80-81.

104) 고용수, “제자화 교육의 과정과 방법,”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3 (1983년), 229.

105) Ibid., 229-230.

2. 기독교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¹⁰⁶⁾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심각한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적인 봉사과 선행 역시 오해를 받고 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부재로 인해 성도간의 상호 불신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우영 교수는 신앙으로 모인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이 도덕적 윤리적 성찰과 실제적인 윤리 실천의 모습들을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속해있는 신앙 교회공동체가 요구하는 개교회 중심의 요구에 복종한 결과 한국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신앙공동체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¹⁰⁷⁾

이은규 교수는 21세기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도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를 교회의 안과 밖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공동체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⁸⁾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기독교 윤리에 바탕을 둔 균형 잡힌 신앙 훈련의 부재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윤리를 따라 가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여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 한국교회의 성도들 역시 학교에서는 부정행위와 SAT 문제지 유출을, 직장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태만하거나 탈세를, 정부에서는 뇌물과 부정부패의 부정직한 행동을 하며, 경쟁에

106) 권혁남은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심각한 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 대표적인 연합단체인 한기총의 부정선거, 담임목사와 전도사간의 불륜, 교회 제정의 횡령 혐의 등과 같은 사건들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비난과 냉소를 받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혁남, "목회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신앙 공동체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 (2012년), 29-31.

107) 박우영, "도덕적 성찰과 실천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연구," *신학과 실천* 28 (2011년), 627-28.

108) 이은규,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양육하는 공동체," *신학과 실천* 28 (2011년), 709.

서 뒤쳐지지 않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강한 경쟁 심리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¹⁰⁹⁾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값싼 은혜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제 4 절 세상과 교회의 단절 (이원론)

1. 개교회 중심의 교회 사역과 교회 성장주도 사역의 문제

이현웅 교수는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이슈들에 무관심하고, 개교회중심의 교회 사역과 교회 성장에만 몰두한 결과 개신교회 스스로가 세상과 분리되었고 결국 자신들만의 교회 안으로 갇히게 되었다고 비판한다.¹¹⁰⁾ 이 교수의 지적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경제적 빈곤자들을 향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있을 때, 결국 개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스스로 문을 닫게 되면 결국 고립되게 되는 것과 같이,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개교회 중심의 교회 사역과 교회 성장주도 사역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은 단순히 세상과 교회의 외적인 단절로 끝나지 않는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은 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음과 같은 성도들을 향한 교회의 역할의 문제를 낳고 있다.¹¹¹⁾

109) 이은규,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양육하는 공동체,” 709-710.

110) 이현웅,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31 (2012), 135.

111) 한국교회의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극단적인 이원론은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인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현”을 외면하도록 만듦으로써,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안

2.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의 부재

임성빈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로 인하여, 현대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틀이 교회가 아닌 정치 경제 과학과 같은 분야의 논리들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다.¹¹²⁾ 즉 교회가 세속화의 거센 도전에 대하여 성경 계시를 통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 속에서 나타나는 합리주의적인 이성의 강조로 인하여 신앙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으로 급격하게 축소화되며, 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교회를 향해 사회의 각 영역인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대답해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주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며 이를 강조하는 거시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¹¹³⁾ 이처럼 한국교회는 사회적 분야가 아닌 개인 신앙적인 범위로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성을 기초로 하는 방식들로 채워지도록 방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교육하지 않았고, 세상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회피함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단절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현상들이 형성되어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임성빈교수는 오늘날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만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¹¹⁴⁾ 전

명준,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복음과 신학* 5 (2002년), 69.

112)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교회와 신학* 30 (1997), 36.

113) Ibid., 36-37.

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회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사회 공헌과 당면 과제의 수행들과 같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를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사회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며, 이로 인해 세상과 교회의 단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제시된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모습 즉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동성을 상실한 사회를 개혁시키며,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한국 개신교회의 배경에는 적은 성도임에도 사회와 문화를 선도하며 정치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 중심과 일부 제직 중심의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대중문화가 급격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교회 신앙교육은 다양한 성도들에게 상당한 거리감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실정인데도,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과 사회를 향한 평신도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¹¹⁵⁾

제 5 절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복음의 상품화

오늘날 한국 사회는 특정한 가치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대신에, 다양한 세계관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마치 다양한 종교의 전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원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¹¹⁶⁾

114) 임성빈 교수는 한국교회 내에서 사회적 책임이 온전히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 자리잡은 ‘반지성주의’ “반주지주의”가 신앙과 신학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원론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37-38.

115) Ibid., 39-40.

116) “개신교의 경우에는 기감, 기장,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94개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 종교 다원주의 상황의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재영, “세속화와 한

종교 다원주의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에 중점을 두어 세상을 향한 공의와 심판의 말씀 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를 따라 소비자의 상품을 내놓듯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르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내용에 까지 다원주의의 상황에 따라 기독교의 내용들에 까지 소비자의 호불호를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¹¹⁷⁾ 즉 한국교회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감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배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세상의 세속화에 따라가는 교회들이 정당화되고,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가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세상 가치의 침투로 인하여 한국교회들은 주변 교회들과 교회 출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고, 각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외적 성장을 이루었느냐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성경 말씀과 교리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교인 수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인 경제적 성공과 행복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요구를 따라 교회는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키고 있다. 정재영 교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야 하고, 연령대별 관심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일부 헌신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실제 교인수보다 더 많은 외형을 강조하며,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세상의 경영학 기법을 적용하는 “복음의 상품화”라는 현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¹⁸⁾ 결국 상품화된 복음을 통한 비성경적인 방법이 교회 성장을 위해 묵인되고, 비신앙적인 방법들 또한 교회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권면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세속화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도시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구조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특

국교회의 성장,” *현상과 인식* 18:4 (1994), 71.

117) 정재영, “세속화와 한국교회의 성장,” 71.

118) Ibid., 73-74.

정한 상황 속에서나 가능할 거라는 패배주의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데에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속화의 문제는 결국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제 4 장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평신도 양육체계 분석

제2장에서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을 고찰함으로써,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사회 변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나타내야 할 교회 예배의 모습들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5가지 오해 및 실천적인 오류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성경의 배경을 토대로 교리가 담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리의 문자적 의미를 절대화하는 교리지상주의의 문제, 둘째,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거나, 시한부 종말론 또는 변영신학과 같이 내세 또는 현세 중심의 편향된 구원 이해의 문제,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삶 또는 기독교 윤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값싼 은혜의 문제, 넷째, 개교회 중심의 교회 사역 또는 지역교회의 성장주도 사역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이 외면되어지는 문제, 다섯째, 교회 내에 세상 가치의 침투로 복음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 세속화의 문제.

본장에서는 실제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현장 속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평신도 양육체계에 대해 교회의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양육훈련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체계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사례교회로는 평신

도를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사랑의교회’와 불신자 전도를 통해 균형 있는 신앙을 갖도록 사역하고 있는 ‘풍성한교회’를 제시할 것이다. 미주한인교회의 사례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 불신자를 평신도 리더로 세우고 있는 ‘휴스턴서울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삶을 강조하며 분담목회를 통해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는 ‘나성영락교회’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사례교회들의 평신도 양육체계의 뼈대가 되는 목회 또는 교회의 철학과 비전, 양육 훈련의 특징, 양육 훈련의 전반적인 체계와 핵심, 양육훈련과정의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평신도 양육체계에 대해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근원, 목적, 그리고 기능 등이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양육체계 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 등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정체성, 사명, 역할 등과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제 1 절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는 25년간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의교회에는 2천명의 작은 목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¹¹⁹⁾ 즉 사랑의교회는 평신도지도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본 절에서는 사랑의교회 목표 및 비전, 양육훈련의 특징, 은혜와 양육체계,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들이 앞에서 고찰한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19) 옥한흠, “사랑의교회와 함께 오직 은혜로 달려온 영광의 25년,” *News 우리* (2004년 1월; 옥한흠 목사 이임예배 특별호), 15-16.

1. 교회 목표 및 비전

사랑의교회는 평신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섬기며 소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를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신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루기¹²⁰⁾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이끄는 것처럼, 사랑의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막6:12)과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헌신을 선포한 말씀(골1:28-29)에 따라 평신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명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120) “사역소개와 교회비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m.sarang.org/sub01/sub06.asp> (2014년 4월 3일 인용)

나. 세상을 섬기는 소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세우기¹²¹⁾

세상을 섬기는 소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를 세우는 사랑의교회 목표는 성도들 각자가 다양한 현장과 사건들 속에서 은혜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바울의 은혜의 목적을 담고 있다. 즉 사랑의교회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과 함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에 순종하는 소명자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¹²²⁾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외톨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립 30주년 기념 특새 및 주일예배 홍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 지나온 사역들을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섬김의 공동체로 거룩한 증보자와 치유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감으로 사회와 모든 민족을 섬기는 사랑의교회 5대 사역비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목자의 심정 (H.E.A.R.T)으로 시대를 품는 비전을 세웠다.¹²³⁾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민족을 치유하는 섬김공동체(Healing Our Nation),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공동체 (Equipping The Disciples), 세 번째,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연합공동체 (Assisting The Global Christian Network),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비전공동체 (Raising Up The Next Generation), 다섯 번째, 사회를 변혁하는 정감공동체 (Transforming Society & Culture)' 라고 선포하였다. 이 사역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사도적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종의 자세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하였다.

121) "청년 사랑의교회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비전비상 (飛全飛上)'하라," News 우리 (2008년 9월 21일) Online:

http://news.sarang.org/newswoori/newswoori_view.asp?db_idx=33906§ion=W005

12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78.

123) 사랑의교회는 2008년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겔36:26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섬기기 위하여 H.E.A.R.T로 상징화한 사랑의교회 5대 사역비전으로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¹²⁴⁾

바울서신에서 은혜는 성도들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이런 은혜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G'LOVE'에 잘 담고 있다.¹²⁵⁾ 즉 'G'LOVE'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¹²⁶⁾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의 은혜의 기능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교회(Growing in Truth)"로서 제자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는 은혜의 기능인 사명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담고 있다. 즉 평신도를 훈련시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이 교회를 뛰어넘어 사회와 나라 및 세계 열방을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시대의 리더들을 세워나가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 "치유하는 교회(Loving Family)" 즉 생명공동체이다. 이는 은혜의 기능 중

124) 오정현 목사는 옥한흠 원로목사 추대 및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특별호의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사랑의교회 2기 사역을 통하여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담대히 선포하며,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주권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사랑의교회가 옥한흠 목사에 이어 제자훈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섬김과 나눔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선포한다. 또한 제자훈련의 목회를 통하여 어린 세대와 젊은이 세대를 복음으로 연결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사를 살리는 목회 사역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한인 젊은이들의 은사와 믿음의 역량을 통해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오정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News 우리* (2004년 1월호; 옥한흠 원로목사 추대 및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특별호), 2-3.

125) 사랑의교회는 2013년 서초예배당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비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God is love)의 마음을 담은 사역비전 G'LOVE'를 제시하였다.

Online: <http://ministry.sarang.org/org.asp>

126) "사랑의교회가 품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G' LOVE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News 우리* (2013년 12월 18일). Online:

http://news.sarang.org/newswoori/newswoori_view.asp?db_idx=90537§ion=W005

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사역과 연관을 갖고 있다. 즉 사랑의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목자의 심정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이념간의 갈등, 빈부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 나이차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 등과 같은 사회와 나라의 상처들을 복음과 말씀, 기도와 헌신을 통해 고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배하는 교회 (Obeying God)”로서 예배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은혜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사랑의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감사와 기쁨이 풍성히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세상을 품는 교회 (Volunteering in Christian Life)”로서 섬김공동체이다. 이는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에 섬김의 정신을 알리고, 실제로 섬김의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서 사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세계선교를 이루는 교회로 사역하기를 원한다.

다섯째, “전파하는 교회 (Evangelizing the World)” 즉 증인공동체로서,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은혜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향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자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2. 양육훈련의 특징

사랑의교회 양육훈련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격과 삶을 훈련하는 것과 은사를 개발하고 리듬과 균형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바울의 은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반영하고 있다.

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격과 삶을 훈련

사랑의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신도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격과 삶을 실천하도록 양육하고 있다. 옥한흠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격과 삶을 훈련시키는 것만이 참자는 평신도를 깨우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제자훈련은 먼저 자신이 확신하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자훈련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과정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나타난 양육의 목적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와 실천하는 데에 있다. 즉 바울이 은혜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자 자신들의 인격을 바로 세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정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정의가 포함되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하기에,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의 왕으로 섬기도록 이끄는 전인격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

한편 사역훈련을 통한 양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법

인 그리스도의 법을 삶 속에서 성취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있다. 즉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미래의 소명을 바라보는 은혜를 고백하며, 새로운 생활의 열쇠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사역훈련 훈련생들에게 삶의 예배를 가르치며,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며,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상을 세우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나. 은사개발, 리듬과 균형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훈련¹²⁷⁾

사랑의교회는 평신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비전을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변화의 삶을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즉 사랑의교회 양육훈련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개발에 힘쓸 것을 평신도지도자들과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 모두에게 요청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사역과 빈민 사역, 노인과 홀리스 사역, 농촌 봉사 사역 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훈련된 성도들과 이들의 손에서 양육훈련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사랑의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은사인 순장의 직분과 함께 사회봉사 사역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비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랑의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끝까지 각자의 은사를 통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127) 김정두, "제자훈련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 양육: 사랑의교회와 동산교회를 중심으로" (D. 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2), 60-61.

또한 사랑의교회는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은사개발과 함께 사역과 섬에 있어서의 균형과 적절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인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의 수여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데에 있어서 종말론적 긴장관계의 삶 속에서도 재충전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지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의교회는 교육관이나 실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역에 지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옥한흠 목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의 ‘리듬과 균형’을 위해 성경 대학과 가정생활 세미나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한 과외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1년에 4개월가량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역에서의 휴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말씀 사역 평신도사역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훈련과 안정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재충전해주고 있다.

3. 은혜와 양육 체계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통해 사랑의교회 양육체계인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살펴보면, 사랑의교회 양육체계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강조되어 있다. 즉 사랑의교회 양육훈련은 앞에서 살펴본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기능들을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사랑의교회 속에서의 자아상과 역할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사랑의교회의 양육체계의 전체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⁸⁾

128) 사랑의교회는 훈련을 시작하는 첫 해 동안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사역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가. 제자훈련

(1) 제자훈련1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의 교재인 제자훈련1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에서는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와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은혜의 기능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제자훈련의 첫 단계에서는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훈련생 본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수혜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습관인 매일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¹²⁹⁾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은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난 회심과 자기고백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상황,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생활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되돌아본다. 둘째, 경건생활과 은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넷째, 기도와 은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으로 자신의 육적인 요구를 넘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한다.

목회자의 지도아래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 받는 과정이다. 이처럼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결국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기간인 2년을 수료해야 한다. 제자훈련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기초다지기, 구원의 진리 깨닫기, 작은 예수되기'가 있으며, 사역훈련 교육과정으로는 '새 생활의 열쇠 성령, 신구약성경 주제와 내용,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 등이 있다.

12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I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11.

(2) 제자훈련 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제자훈련 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에서는 집을 세울 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앙의 내용을 구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독교 교리의 주제들을 통해 복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즉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진리를 복음, 교리, 생활이라는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¹³⁰⁾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의 권위와 은혜. 성경은 살아계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의 선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말과 행동으로써 나타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성도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 넷째, 거듭난 사람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은혜의 통로로서 삶 속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믿음, 칭의, 그리고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여섯째, 성령과 은혜.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은

13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I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7.

혜로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다. 특히 성령충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성화와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항상 거룩함에 힘쓰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여덟 번째, 재림과 은혜.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므로, 무절제하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3) 제자훈련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제자훈련 3권 ‘작은 예수가 되라’에서는 날마다 경험하는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훈련생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¹³¹⁾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종의 생활과 은혜. 사도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한다. 특히 참다운 순종은 삶 속에서 문제나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한다. 둘째, 봉사와 은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131)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II 작은 예수가 되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7.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따라서 봉사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는 자세로 서로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 셋째, 화목과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이며, 세상 속에서 불신자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넷째, 말의 덕과 은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서 항상 조심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해야 하며, 말로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순결한 생활과 은혜.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므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여섯째, 연단과 은혜. 그리스도인의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겸손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도구로서, 고통의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찾도록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변화한다. 즉 고난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아닌 기회요, 훈련의 과정이다. 일곱 번째,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인류가 모인 교회는 사랑이 넘쳐날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사역훈련

사랑의교회 사역훈련은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들을 대상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랑의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사역훈련은 제3권으로 이루어진 사역훈련 교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사역 현장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또한 사역훈련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봉사를 감당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를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삶의 영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역훈련 1권 '성령, 새 생활의 열쇠'

사역훈련 1권 '성령, 새 생활의 열쇠'에서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새 생활의 열쇠 성령'이라는 주제로, 제자훈련을 끝낸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새로운 생활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평신도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¹³²⁾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죄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성령을 따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둘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과 은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육신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일치시킴으로써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행실을 죽이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

13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I 성령, 새 생활의 열쇠*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1.

하심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사역훈련 2권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사역훈련 2권에서는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이라는 주제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제자의 자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어떤 교회관과 자아관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봉사하는 은혜를 입은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 어떠한 교회관과 제자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다. 즉 성도 자신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정의하는 교회관을 바로 알게 함으로써, 교회의 체질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¹³³⁾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와 은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존재와 은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의 전부를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야 한다. 셋째, 제자와 은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며, 삶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

133)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II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7.

며 복음을 전달하는 경건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넷째, 지체와 은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여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야 한다. 다섯째, 왕 같은 제사장과 은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얻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선과 구제를 행함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사역훈련 3권

사역훈련 3권에서는 양육훈련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작은 목회자로서 사랑의교회 구역이나 다락방 등의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론을 제공한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삶 속에서 경험한 상황들을 함께 나누며,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실습을 통해 훈련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에서는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목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귀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된다.¹³⁴⁾ 따라서 사역훈련 3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있어서 소그룹 환경 속에서 공동체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서로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 환경과 은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나누실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신앙 훈련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13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III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9.

모범을 따라 지체들이 함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친밀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귀납적 성경 연구,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소그룹 견습과 실습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한다.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

사랑의교회 양육훈련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경건의 습관을 통해, 은혜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인격을 성숙한 단계로 믿음과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이끌고 있다. 즉 사랑의교회 양육체계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인 고백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사랑의교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교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단계들을 폭 넓게 제시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3장에서 지적한 은혜에 대한 오해의 부작용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장점과 단점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육체계의 장점

첫째, 사랑의교회 양육프로그램인 제자훈련은 교역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통해,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역의 주체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 적극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의 의식 변화를 도왔다. 또한 교역자만이 아닌 평신도들 또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교회 양육훈련은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

둘째,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은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개념과 교회성장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켜 주었다. 즉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은 기존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풍요를 위한 개인주의의 축복의 추구와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양적 성장 제일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과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나. 양육체계의 단점

사랑의교회 양육훈련은 3장에서 지적한 은혜에 대한 부작용 즉 세상과 교회의 구체적인 연결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였다. 즉 교회가 사회적 책임의 역할로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윤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훈련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삶 속에서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배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깊은 삶의 나눔과 고백을 통해 양육되어야 하지만, 사랑의교회 양육체계는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인도자들의 영향력과 삶에 따라 제자훈련의 성패가 좌우된다. 즉 평신도훈련 리더들이 성경공부의 내용을 넘어서 훈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내느냐에 따라 제자훈련을 받는 평신도들의 훈련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지체들을 섬기는 훈련이기에 실제의 삶 속에서 지도자들이 은혜받은 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본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도자로부터 변화되는 모범의 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자훈련은 부담과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삶과 분리되는 문제로 인하여 커다란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다.

둘째, 바울서신에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가족 단위의 구원의 은혜가 퍼져나갔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남녀 구분 없이 하

나눔께 받은 은사들을 통해 은혜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즉 교회 공동체의 양육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직업의 특수성에 맞게 구역 모임이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사랑의교회는 양육에 있어서 남자 성도의 참여가 부족하고, 다락방(제자반)의 경우에도 여자 다락방(제자반)에 비해 남자 다락방(제자반)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 남녀 다락방(제자반)의 불균형의 문제를 겪고 있다.¹³⁵⁾ 이는 사랑의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이 양육훈련과 제자반 모임에 참석하기가 그들의 직업상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남자 평신도 리더들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준다.¹³⁶⁾

셋째,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제자도를 통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통해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킴으로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하지만,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훈련은 훈련을 받는 성도들을 교회 전체의 일관되고 확일적인 목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성도들 각자가 양육훈련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깨닫고 계발시켜서, 교회의 사역현장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데 미흡하였다. 또한 제자양육 훈련을 통해 성령의 은사로서 지체들을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세워 주며 세상 속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양육과정을 찾기 어려웠다. 즉 양육훈련이 훈련생들에게 교회의 지체나 이웃들,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책임감과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의 지식으로 잘못된 교회관을 가질 수 있으며,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갖게 된다.

13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지역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두란노서원, 1987), 321.

136) Ibid.

제 2 절 풍성한교회

1. 교회 비전

풍성한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평신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세웠다. 즉 평신도들을 양육 훈련시켜 2천명의 선교사와 2만명의 셀리더를 세워 평신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세계비전을 이루고 있다. 이를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풍성한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을 세우기 위해, 평신도들이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사역을 감당해나가는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풍성한교회의 김성곤 목사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평신도 리더로 남을 것인지, 전임 사역자인 목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철야기도를 하던 중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비전을 이루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로 결심한 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풍성한교회의 비전으로 삼았다.¹³⁷⁾ 또한 김성곤 목사는 풍성한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제자훈련을 통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도를 통하여 회심한 개인 개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향해 헌신하도록 섬기고 있다.¹³⁸⁾

137)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일산: 두날개, 2009), 89.

138) Ibid.

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¹³⁹⁾

풍성한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대그룹모임과 소그룹모임의 균형을 통해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대그룹모임은 축제예배로서 하나님의 위대성(초월성)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그룹모임은 전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성(내재성)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그룹예배는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리허설로 준비하고 있다. 소그룹모임은 전인적인 셀그룹모임을 통하여 셀가족들이 가족 같은 관계를 뛰어넘어서 한가족으로서 하나님나라를 함께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주간동안 지속적으로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즉 서로를 책임지는 전인적 모임을 통해 셀원들의 생명을 서로가 함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풍성한교회는 ‘두 날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성도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소그룹모임을 통해 함께 나뉘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사명 선언문¹⁴⁰⁾

풍성한교회는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목적인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천2만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명선언문을 제시하였다. 2천

139) "교회소개," 풍성한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ww.psh.or.kr/> (2014년 4월 인용)

140) "교회소개 2천2만 세계비전," 풍성한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ww.psh.or.kr/> (2014년 4월 인용)

비전은 마28:18-20의 말씀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임하신 것처럼, 2천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2만 비전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비전(행 2:42)이다. 지역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마9:35-38)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셀가족 모임에서 각자의 은사와 섬김과 협력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셀리더 2만명을 세우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시고 양들을 돌보시며 섬기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양육시켜 지역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자들로서 세우는 것이다.

풍성한교회는 사명선언문을 통해 성도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풍성한교회의 사명인 ‘2030 2천2만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목회자는 리더십을, 평신도는 사역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평신도들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마음으로, 가족,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가정을 비롯한 직장과 다양한 장소에서 열린 모임을 하고 있다. 풍성한교회는 이와 같은 관계중심적인 소그룹 전도를 생활화하는 ‘필요중심적 전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처럼 풍성한교회는 2030 2천2만 세계비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평신도들을 제자훈련시켜 훈련된 평신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사역을 나누어 감당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양육훈련의 특징

풍성한교회 양육훈련은 모든 훈련과정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회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불신자를 전도하여 양육하는데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바울의 은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반영하고 있다.

가. 강한 동기 부여와 특수성 고려

바울서신은 은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풍성한교회의 양육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기 위해 특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는 모든 훈련과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기 부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양육 훈련을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는다. “절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초상이 나도 와야 하고, 결혼을 해도 와야 하며, 출산을 해도 올 것을 약속합니다.”¹⁴¹⁾ 이와 함께 김성곤 목사는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믿음이 성숙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과 같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노력을 의미한다.¹⁴²⁾

한편 풍성한교회는 은혜의 기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와 같은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들과 사역들은 풍성한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양육훈련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김성곤 목사는 풍성한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빨리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풍성한교회의 양육체계는 풍성한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김성곤 목사는 선교단체의 양육 프로그램은 구성원이 비슷한 상황에 있고, 나이대가 큰 차이가 없으며, 생각이 유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자훈련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풍성한교회와 같은 지역교회는 살아온 환경, 가정 상황, 나이 등 대부분의 요소들이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풍성한교회의 특수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⁴³⁾

141)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92.

142) Ibid., 90.

143) Ibid., 93.

나. 불신자 전도 양육

풍성한교회의 양육훈련의 특징은 불신자들이 은혜의 통로 즉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에 있다. 즉 풍성한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목과 화해의 직책을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는 양육으로 인하여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⁴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80퍼센트의 성도들은 풍성한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불신자였으나, 양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김성곤 목사는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불신자를 전도하여 양육하는 풍성한교회의 양육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삶 속에서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개인을 넘어서 가정에도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건강하게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44)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93-95.

3. 은혜와 양육 체계¹⁴⁵⁾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에 비추어 풍성한교회의 양육체계를 살펴보면, 풍성한교회의 양육체계 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훈련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전인적치유수양회’를 통해 1차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12주 양육반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균형있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별로 영적 성장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은혜의 통로로서의 복음의 전달과 삶의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과정 등이 잘 표현되도록 하였다. 풍성한교회의 양육체계의 전체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풍성한교회는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이 새가족반을 마친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전체 12주 과정의 양육반에 들어가도록 한다. 풍성한교회는 이와 같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새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성장하며, 다른 불신자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양육 체계를 만듦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다. 특히 12주 과정의 양육반 과정을 통해 새신자들은 풍성한교회의 비전과 김성곤 목사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사역할 동역자로 세워나가게 된다. 즉 풍성한교회는 양육과 훈련 교육과정을 통해 풍성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해 가고 있다.

따라서 풍성한교회 양육체계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초신자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을 양육훈련을 통하여, 그

145) 풍성한교회의 ‘두날개양육시스템’은 1단계 전도훈련(12주과정의 전도소그룹 열린모임), 2단계 정착훈련(전도와 양육의 연결과정으로 새가족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새가족반과 새가족 섬김이사역), 3단계 양육훈련(사역의 기초를 다지는 양육과정), 4단계 제자훈련(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열린모임 인도자로 훈련하는 제자대학 1학기과정), 5단계 군사훈련(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셀리더로 훈련하는 제자대학 2학기과정), 6단계 제생산훈련(제생산 사역자의 삶을 훈련시키는 제자대학 3학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단계 양육훈련의 과정만을 풍성한교회의 양육훈련 과정으로 선택하여 풍성한교회의 양육체계를 분석하였다.

들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기초가 잘 다져지도록 인도하고,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와 교제의 삶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¹⁴⁶⁾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치유수양회

풍성한교회의 양육반 과정은 개강과 함께 개강 수양회 즉 전인적수양회를 열어 새신자들을 섬기고 있다. 전인적치유수양회는 새신자들의 육신과 마음, 영적인 부분 모두에서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함으로써, 새신자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전제조건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¹⁴⁷⁾ 특히 전인적치유수양회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루어서, 과거에 가졌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한다. 김성곤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여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정생활의 문제와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¹⁴⁸⁾ 이처럼 전인적치유수양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면의 잘못된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이다. 즉 전인적치유수양회는 성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양육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전인적치유수양회는 훈련생들에게 은혜의 인위적인 고백을 요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수양회에서 요구되는 가시적인 현상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특별한 경험이나 인위적인 성령의 은사 등에 집착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훈련생들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인적치유

146)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07.

147) 전인적 치유수양회의 세부 교육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의 기회를 위한 '운명을 바꾸는 기회', 죄문제 해결을 통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의 '죄와 십자가', 인생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건고한 진을 파하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한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으라'의 순서로 진행된다.

148) 김성곤, *전인적 치유 수양회* (일산: 두날개, 2009), 4.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육체적, 심리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훈련생들의 고백을 언제나 또는 반드시 가져올 수는 없기에, 집단적인 죄의 고백을 비롯한 변화된 삶의 자세나 은혜의 경험을 강요하며, 요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풍성한교회의 전인적치유수양회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경험과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유 등과 같은 현상들에 대한 인위적인 고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성도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수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나. 12주 양육반 과정

풍성한교회 양육반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 각자가 삶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¹⁴⁹⁾ 김성곤 목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선포한다. 그는 영적인 성장은 오직 강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양육이고 훈련이라고 말한다.¹⁵⁰⁾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원의 확신과 은혜. 양육 훈련을 함께 할 지체들의 삶을 서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에 관한

149) 양육 훈련의 유의사항에 보면, 훈련자들은 양육 훈련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요구받으면서,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닌 기도와 열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삶 속에서 섬기는 성도들로 세움 받을 것을 요구받는다. 김성곤, *양육의 기쁨* (일산: 두날개, 2003), 8.

150) Ibid., 9-11.

내용을 다룬다. 둘째, 사죄의 확신과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과 삶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결단을 다룬다. 셋째, 기도응답의 확신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변화와 하나님의 응답을 다룬다. 넷째, 인도와 승리의 확신과 은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다룬다. 다섯째, 성령충만과 은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세상 속에서 언제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매일의 경건의 삶의 자세들을 다루고 있다. 여섯째, 묵상과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일곱 번째, 열린모임과 은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과의 기회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으키는 복음 운동이며, 성경적인 전도방법을 다룸으로써,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킨다. 여덟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와 은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지체들을 권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할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인 셀그룹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풍성한교회의 양육프로그램인 12주 양육반 과정은 초신자들이 은혜의 수혜자이자 통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신앙의 기초적인 확신과 고백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양육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들마다 자신들이 양육반 수업시간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훈련 동료들과 함께 삶의 다양한 현장들 속에서의 적용과 함께 교제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통해 풍성한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서로의 사명을 세워주고 격려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¹⁵¹⁾

151)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06.

다. 여덟 가지 수레바퀴

풍성한교회의 양육훈련 과정인 ‘여덟가지 수레바퀴’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수혜자이자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균형있게 담고 있다. 풍성한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기초이자, 가장 기본적인 삶을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날마다 풍요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레바퀴의 삶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가 수레의 바퀴처럼 균형을 잘 이루며, 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레바퀴의 삶은 첫 번째 단계로 성도들이 성령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수혜자이시고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즉 성도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행복의 출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¹⁵²⁾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삶을 훈련생들이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도록 돕는다. 은혜의 기능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도록 도우는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성도들을 죄에서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도록 권면하며, 이때 기도응답을 강조하는데, 이는 기도응답이 살아있고 실제적인 기도 응답이 되도록 돕는다.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는 성도들이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한 영적인 호흡과 같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도들은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따라서 ‘여덟가지 수레바퀴’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152)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07-108.

네 번째, ‘예배’훈련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풍성한교회의 예배훈련은 훈련생들로 하여금 예배는 축제의 장소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에 성공한 자가 누릴 행복에 대해서 훈련함으로써,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성도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특히 주일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임을 주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다섯째는 ‘섬김’훈련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을 공동체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며, 섬김의 기쁨을 즐겨워하는 삶을 사는 것의 중요한 뿌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여섯째는, ‘증거’훈련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과 화해의 직책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증거’훈련은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날마다 1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다. 복음 증거를 통해 성도들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증거’훈련이 세상 속에서 사회와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훈련시키고 있다.

일곱째, ‘교제’ 훈련이다. 삶 속에서 은혜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러나 교제는 성도들 간에 단순히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 속에서 만나는 신앙을 나누는 것으로, 이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원하시는

사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다. 또한 동료 간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여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다. 수레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부분은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은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은혜의 사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¹⁵³⁾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풍성한교회 양육체계는 수양회를 통해서 양육훈련생들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2주 양육반 과정이 단순히 기존의 성경공부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12주 양육반에서 갖게 될 훈련생들 간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갖게 해주었다. 특히 12주 양육반 과정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화해의 대사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먼저 갖추어야 할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의 삶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여덟 가지 수레바퀴’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장점과 단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53) 장석천, “미주한인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107-108.

가. 양육체계의 장점

첫째, 풍성한교회는 양육훈련을 하기에 앞서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가짐으로 훈련생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영육간의 상처들과 문제들을 다루고 치유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풍성케하는 성령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전인적 치유수양회’에서 나타난 훈련생들의 경험들은 이후 진행되는 양육훈련 과정과 연결됨으로써 훈련생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풍성한교회의 비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계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 복음화’하는 계획이 사회를 향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양육훈련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풍성한교회의 양육 시스템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향한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는데, 풍성한교회는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양육훈련이 진행되기 위해서 ‘전인적 치유수양회’와 ‘12주 양육반’과 같은 양육훈련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보기도팀은 ‘전인적 치유수양회’와 ‘12주 양육반’에서 훈련받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양육훈련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기도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양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성경공부를 통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양육훈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성도들이 은혜의 사신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양육훈련을 위한 중보기도팀의 기도 중보사역은 집중적인 기도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양육과정의 다양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양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양육체계의 단점

첫째, 양육훈련 과정인 '전인적 치유수양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강하게 깨닫게 함으로 훈련생들에게 영적인 체험과 함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인위적인 성령충만의 방법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강제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건강한 영적 은사들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즉 성도들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이웃사랑이 오히려 이웃으로부터 고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삶은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풍성한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육훈련 교재에 담겨진 내용들은 연역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살기 위해 체험하게 되는 삶의 고난과 위기에 대한 사례들과 나눔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성한교회의 연역적 방식의 성경공부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미리 성경 본문의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제시해줌으로써, 훈련생들이 주도적으로 양육훈련 교재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하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킬 수 있다. 즉 훈련생들의 실제적인 사례나 경험 등을 통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귀납법 성경공부의 방식이 훈련생들에게 적극적인 사고와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실제로 사역현장에 적용하는 데 유의하다는 것을 고찰해 본다면 양육훈련에 귀납법적인 성경공부 방식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훈련교재의 방식들이 필요하다.¹⁵⁴⁾

154) 장석천, “미주한인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108.

제 3 절 휴스턴서울교회

1. 교회 비전 및 교회 특징

휴스턴서울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 삶을 함께 나눔으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엡4:11-12)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사역을 분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가정교회이다. 휴스턴서울교회의 특징은 가정교회의 세 가지 원칙, 가정교회의 사명과 비전, 가정교회의 핵심가치, 가정교회의 사역목표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바울의 통전적 이해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교회의 세 가지 원칙¹⁵⁵⁾

바울서신에서 바울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며,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같이, 휴스턴서울교회는 성경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이다. 휴스턴서울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그 원칙 위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실천하는 교회(마28:19-20). 휴스턴서울교회의 최영기 목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사명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며, 모든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선포를 통하여 교회공동체 및 지도자들을 세우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는 교회 개척자들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제자를 만들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155)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서울: 두란노, 1999), 45-60.

다. 특히 휴스턴서울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방문자들은 연약한 교회에서 섬길 것을 원하는 안내문을 교회 주보에 명시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막 3:13-15). 휴스턴서울교회는 바울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비하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과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해야 한다고 하며, 또한 성도들이 가르치는 사역은 성경공부만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 가르치는 사역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스턴서울교회는 단순히 듣고 배우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사도바울이 선포한 것과 같이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삶을 평신도들이 보고 나누며 배우는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다.

셋째,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하는 교회(엡4:11-12). 바울서신에서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는데, 휴스턴서울교회는 가정교회를 운영할 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성경적인 사역의 분담의 원칙을 통하여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스턴서울교회는 성경적인 사역의 분담을 위해 목회자는 평신도의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은사를 나타낼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역 즉 '성도들을 온전케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 즉 전도, 심방, 상담 사역 등과 같은 사역과 교회 내에서의 모든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성도들이 목양과 함께 휴스턴서울교회를 세우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휴스턴서울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성도들이 예배참석이나 헌금을 내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둬으로써 평신도의 사역의 기회를 제한시키거나, 평신도의 은사가 보람 있는 사역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휴스턴서울교회는 가정교회로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기존 교회의 예배의식 중심 신앙생활이나 성경공부 중심의 제자훈련에서 벗어나 전도와 섬김의 삶을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이 직접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휴스턴서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평신도를 목자로 세워 기존 지역교회의 기능인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을 감당하며, 담임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한다. 특히 평신도들은 삶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삶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휴스턴서울교회 평신도 사역자는 가정교회의 섬김 사역을 통하여 목회자와 동역자로서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준비되는 것이다.¹⁵⁶⁾

나. 가정교회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 사역목표¹⁵⁷⁾

휴스턴서울교회는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과 같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통하여 “온 세계의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구분되는 사역을, 삶 속에서 생활화된 전도로 영혼 구원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평신도 사역자들을 재 생산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

156) “가정교회사역원 소개,”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Online: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 (2014년 4월 인용)

157) “가정교회사역원 사명, 사역방향과 목표,”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Online: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 (2014년 4월 인용)

또한 휴스턴서울교회의 가정교회 핵심가치는 가정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구체화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즉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치들을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며, 가정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며, 교회는 영혼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데 존재 목적이 있으며, 삶을 통해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며,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하는데 성도들은 가정교회를 목양함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휴스턴서울교회의 가정교회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휴스턴서울교회의 가정교회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¹⁵⁸⁾

첫 번째, ‘목장.’ 목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은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통해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변화된 삶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정교회의 기본조직이다. 휴스턴서울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지, 기본을 이루는 모임 단위이다. 지역교회와 같은 실제적인 가족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가정교회의 목장에서는 영혼구원과 분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변화의 실제들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삶 공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휴스턴서울교회는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닌, 성경공부를 통해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삶 공부를 제공하고 있다. ‘삶 공부’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으로, 목장을 통하여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실천해보는 학습 현장과 함께 진행된다. ‘삶 공부’는 목장 생활이 은혜롭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준다. 교회는 목장의 리더인 목자의 양육을 위해 단계별 삶 공부를 제공하기도 한다.

세 번째, ‘연합예배.’ 휴스턴서울교회에서는 전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중보기도를 비롯한 철저한 예배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도들의 삶

158) 가정교회사역원, *가정교회 길라잡이*, 제49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 vol. 49 (2012), 8.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정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도들이 휴스턴서울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동참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양육훈련의 특징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훈련은 양육훈련과정인 ‘삶 공부’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휴스턴서울교회는 ‘삶 공부’ 훈련과정에 다양한 지원들, 책임감 강조, 삶공부의 중요한 원칙들을 통하여 체계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바울의 은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반영하고 있다.

가. 눈높이 양육을 통해 불신자를 평신도 리더로 세우기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는 바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소망과 기쁨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한 것과 같이, 휴스턴서울교회의 삶 공부는 불신자들에게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 방식을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예화들로 현장감 넘치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삶 공부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다양한 신앙 관련 질문들에 대한 설명과 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며, 교리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삶 공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삶과 연관된 삶 공부는 불신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바울과 같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로 인도한다. 또한 휴스턴서울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종적으로는 가정교회를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수료시까지 3개월 안에 삶 공부 과정들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기독교인이나 처음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의 삶 공부 과정에 대한 기대와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나. 체계적인 신앙생활의 기초세우기.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훈련은 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기초세우기 과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삶’ 성경공부 과정은 초신자들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교육함으로써, 신앙생활에 대한 전체 뼈대를 잡아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평신도 리더인 목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불신자와 기존 신자들은 생명의 삶 과정에서 담임목사로부터 휴스턴서울교회 신앙관과 목회 철학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관의 확인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휴스턴서울교회의 지체들로서 세워지는 기초를 쌓는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훈련시키는 삶 공부 과정은 분명하고 확실한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증을 많이 이용해 불신자들의 이해를 돕고, 중보기도팀은 가정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을 만드는 성경공부를 위해 금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휴스턴서울교회의 삶 공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가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통해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훈련하는 중요한 과정을 반영하여 참가하는 성도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삶 공부에 참가하는 훈련생들이 끝까지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삶 공부 과정의 등록금을 정하고, 수업 시간마다 과제물을 제시함으로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결석 횟수가 많을 시에는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수업 일정이 제시되면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수업 일정이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린아이들을 동반하는 젊은 부부 학생들을 위하여 아이를 돌보는 탁아 도움 서비스를 준비한다.

이 밖에 휴스턴서울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예배자를 양육하기 위한 삶 공부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⁵⁹⁾ 첫째, 양육훈련의 첫 단계인 생명의 삶 과정은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고, 다른 과정의 삶 공부는 평신도나 부교역자들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휴스턴서울교회의 비전이 생명의 삶 과정과 향후에 진행될 양육훈련의 과정들 속에서 훈련생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둘째, 삶 공부 과정에 교수평가제를 사용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삶 공부 과정을 배웠는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삶 공부 양육훈련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한다. 또한 간증의 과정을 사용하여 삶 공부를 통하여 수강한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한다. 셋째, 삶 공부는 수강하는 훈련생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준비해오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성경만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 담겨 있는 또는 삶을 가르치는 삶 공부가 되게 하고 있다. 넷째, 삶 공부 과정을 수료할 때에는 삶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중심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주일 전교인들 앞이나 수요 예배에서 갖는다. 이를 통해 양육훈련 졸업자들이 삶 공부 과정 중 받게 된 은혜를 발표하게 하는 수료식을 가짐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한다.

3. 은혜와 양육 체계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에 기초해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체계인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살펴보면, 필수과정에서의 삶 시리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택과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 등과 같은 보다 구체화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가를 다루고 있다.

또한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체계는 전도된 불신자들을 가정교회의 평신도 리더들로 양육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확신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

159) 아틀란타 한인침례교회, “제67차 목회자 가정교회 세미나,” *가정교회세미나 강의집*, 2010, 20-21.

접하는 것에서 출발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 과정들을 통해 불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킨 후에 평신도 리더로서, 목자로서 휴스턴서울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⁰⁾

가. 필수과정¹⁶¹⁾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훈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생명의 삶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교회공동체와 사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훈련들을 다루는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을 필수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과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생활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들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동기들을 소개한다. 특히 신앙의 결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활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영적인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즉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생활을 통해

160) 휴스턴서울교회는 양육 과정으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구성된 필수 5과목 과정이 있고,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예비부부의 삶, 교사의 삶, 풍성한 삶, 제자의 삶, 말씀의 삶, 선교의 삶, 목자와 목녀의 삶으로 구성된 선택 9과목 과정이 있다. 특히 평신도 리더 또는 목자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은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161) 아틀란타 한인침례교회, “제67차 목회자 가정교회 세미나,” 21.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생명의 삶 과정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화 평감이 넘쳐나는 생활로 변화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성도들은 지체들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경건의 생활을 통해, 날마다 공동체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한편 생명의 삶 과정이 사용하는 강의 방법은 믿음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 위주로 진행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앙의 출발’ 단원에서는 죄, 하나님의 사랑, 회개, 신앙을 다루고, ‘새로운 생활’ 단원에서는 중생,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며, ‘성장의 생활’ 단원을 통해서는 성장,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다루며, ‘교회의 생활’에서는 교회, 교회 회원, 교회생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들을 다루고, ‘경건의 생활’ 단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행실, 승리의 생활을 다루고, ‘헌신의 생활’에서는 헌신의 동기, 헌신의 방법, 헌신의 결심, 헌신의 보상 등을 다룬다.

따라서 생명의 삶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게 함으로써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제시한다.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점검함으로써,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할지 소개한다.

(2) 새로운 삶

‘새로운 삶’ 과정은 바울서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적 방법 등을 제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친 성도들은 NCD에서 출판된 ‘새로운

삶의 실천'을 교재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새로운 가치관을 학습하게 된다. '새로운 삶' 훈련의 방법은 강의식 훈련에 소그룹을 함께 병행하며, 핵심 주제에 대한 Letter 용지 1-2장 분량의 과제물을 통하여 성도들과 인도자가 새로운 삶의 과정을 서로 깊게 소통하며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삶 과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세상 나라들, 종의 삶, 나의 삶, 권세를 대면함' 등과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지는데, 이 주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배우게 된다.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은혜의 통로로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방법과 자신의 연약함을 다루는 태도와 과정들을 학습하고, 영적 전쟁 속에서 권세를 대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훈련받게 된다.

(3) 경건의 삶

'경건의 삶' 과정은 은혜의 수혜자에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체들을 섬기는 가정교회의 평신도리더로서 훈련시키는 핵심 과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건의 삶' 과정은 '생명의 삶' 과정과 '새로운 삶'의 과정들을 마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재는 리처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훈련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 주변 지체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를 훈련의 주제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섬김의 훈련, 금식의 훈련(세족식), 고백의 훈련, 학습의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묵상의 훈련, 복종의 훈련, 단순성의 훈련, 홀로있기의 훈련, 기뻐하는 훈련들이다. 이를 13주에 걸쳐 양육 받게 된다.

따라서 '경건의 삶'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과정이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정교회 모임의 구성원들인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경건의 삶’ 과정의 훈련은 양육훈련을 받는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평신도리더로 세움을 받기 위한 과정이므로, 양육 방식은 언제나 소그룹으로만 진행된다.

(4) 확신의 삶

‘확신의 삶’ 과정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하는 훈련과정이다. 교재는 랄프 네이버가 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를 사용하며, 6주에 걸쳐 갖는 훈련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도록 함으로써,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확신의 삶 과정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삶 공부 과정이다. 훈련자와 양육자가 일대일 개인 지도 방식을 통해 양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인도자를 멘토로서 교체하며 인도자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확신의 삶 과정은 가정교회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¹⁶²⁾

(5)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울서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변화를 받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성도를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게 될 평신도 지도자들은 언제나 은혜 아래 있음으로 화목과 화해를 나타내야 한다.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훈련 필

162) 휴스턴서울교회의 확신의 삶 양육 훈련의 세부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그것의 생명과 섬김), 두 가지 속성(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구원의 3가지 단계,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다섯(다섯 원리)등을 다룬다.

수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가정교회를 섬기게 될 목자에게 이와 같은 삶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은 평신도 리더인 목자로 안수 받을 예정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일대일 과정을 통해 훈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은 온유과 겸손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교회 모임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필수과정의 마지막 양육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 선택과정

총 9과목의 선택 과정 가운데 중요한 몇 개의 과정들을 선택하여 그 과정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와 연결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³⁾

(1) 부부의 삶

‘부부의 삶’ 과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 가정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즉 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정 속에서의 은혜의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부부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삶’ 양육훈련 과정은 13주 과정으로 성경 속에서 나타난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부부가 가장 친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훈련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부부의 삶’ 과정은 오늘날 많은 부부간에 나타나는 문제들 즉 배우자 간에 나타나는 관계의 단절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배우자 간에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지, 부부 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로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배우자를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성경공부의

163) 장석천, “미주한인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100.

형태로 훈련한다. 따라서 ‘부부의 삶’ 훈련은 부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동역자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 것이다.

(2) 부모의 삶

‘부모의 삶’ 양육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훈련이다. 즉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과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삶’ 양육과정은 13주의 과정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영적인 교훈과 모범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훈련하게 된다.

(3) 예비부부의 삶

‘예비부부의 삶’ 양육과정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에게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부부의 삶’ 과정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6주간 교육하는 양육훈련 교육 과정으로, 예비부부의 삶 과정을 통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환상에서 벗어나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또한 ‘예비부부의 삶’ 과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함으로써, 성경적인 부부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게 된다.

(4)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양육과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며, 복음을 전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성한 삶’ 과정은 13주의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비, 저축, 예산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배워나가게 된다. 따라서 풍성한 삶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사용과 관리의 원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5)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양육과정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양한 지역에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듯이, 휴스턴서울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명을 가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시킨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자의 삶’ 과정에서는 필수 과정에서 배운 주제별 성경공부, 성경 읽는 것, 묵상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와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나의 성찰 등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훈련을 갖는 과정이다.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

휴스턴서울교회 양육훈련은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양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이 아닌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은혜로운 삶을 평신도리더들이 제시함으로써,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초청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가정교회의 소그룹 목장 모임에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게 한다. 이어서 양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함께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한다. 이는 훈련생들이 양육훈련이 다루게 될 핵심 목표인 은혜의 수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그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깨닫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양육훈련 사역에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장점과 단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육체계의 장점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훈련은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휴스턴서울교회는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나라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지체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휴스턴서울교회로 전도된 불신자들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정교회인 소그룹 목장과 교회를 통해 체험하게 하고, 또한 '삶 공부'를 통한 양육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불신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게 하고

있다. 즉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 훈련은 교회 안에서 단순히 듣고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 행동을 통해 느끼고, 섬김을 통해 배우는 훈련이다. 예를 들어, 담임목사와 사모가 먼저 평신도 지도자들의 섬김의 모델이 되어 모든 평신도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섬김의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¹⁶⁴⁾ 즉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 훈련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양육훈련의 리더들이 모델링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

나. 양육체계의 단점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기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믿음 안에 서 있도록 소망과 함께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 받은 은혜를 찬송하도록 성도들을 도우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며, 소망과 위로의 은혜를 주심으로 성도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신다. 이러한 은혜의 기능들은 양육 받은 평신도리더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평신도리더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양육과정이 요구되며, 전체 교회 성도가 주일예배가 아닌, 주중예배를 통해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연합사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휴스턴서울교회의 양육 훈련 체계 안에는 양육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리더들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제자로서의 삶의 요소가 담겨있지 않았고, 평신도 리더들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양육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토요일새벽예배가 금요일에 진행되는 목장모임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고, 평일 새벽에는 예배가 없이 적은 수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전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과 지체의식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¹⁶⁵⁾

164) 장석천, “미주한인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102.

165) Ibid.

제 4 절 나성 영락교회

1. 교회 비전

나성영락교회는 세상 속에 흠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이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인적 구원에 힘쓰는 교회, 이민사회에 부응하는 교회, 분담목회를 통한 평신도 지도력 개발과 2세 목회를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배움의 문화를 통한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¹⁶⁶⁾ 이를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복음을 통한 전인적 구원과 이민사회에 부응하는 교회¹⁶⁷⁾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목적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변화를 일으켜 그들이 삶 속에서 은혜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나성영락교회의 박희민 목사는 이러한 은혜의 목적을 성경의 복음을 통해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포한다. 즉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는 전인적인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성영락교회는 불신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166) 나성영락교회의 교회비전은 나성영락교회의 1대 위임목사로서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5년 동안 나성영락교회의 개척, 정착, 성장 단계를 섬기며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던 1대 김계용 목사와 2대 위임목사로서 나성영락교회의 발전기를 이끌고 1988년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2004년까지 16년 간 섬겼던 2대 박희민 목사가 언급한 설교집과 논설들 속에 나타난 목회 원리들과 목회 정책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의 배움의 문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역에 전념했던 3대 링형천 목사의 “삶 시리즈” 교재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 현재 나성영락교회는 2013년부터 4대 김정진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167) 박희민, *나성영락교회 20년사* (로스엔젤레스: 나성영락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1996), 214-215.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세상적인 합리주의와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같은 사람들의 공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신비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희민 목사는 나성영락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전인적 구원을 감당하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독교의 복음을 통한 목회 사역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선포한다. 그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전인적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포한다.

또한 나성영락교회는 은혜의 기능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소망과 함께 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부응하는 교회라는 목회 비전과 함께 이민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며, 이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삶,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즉 나성영락교회는 성도들이 이민자로서 필요한 영적인 요구들을 채워주며,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 이민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세웠다. 특히 박희민 목사는 이민교회인 나성영락교회는 성경을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리에 토대를 두고, 과거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과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현재 이민사회와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북미 한인 사회와 문화의 상황을 고려하는 이민교회로서의 사역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⁸⁾

나. ‘분담목회’를 통한 평신도 지도력 개발과 2세 목회의 강조

나성영락교회는 은혜의 기능인 성도들이 복음을 통한 변화와 사역을 통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와 목회자가 사역을 함께 하는 ‘분담목회’를 강조한다. 담임 목회자가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성도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사는 ‘분담목회’를 선포하였다. 이 사역은 나성영락교회는 부교역자들이 다양한 사

168) 박희민, *나성영락교회 20년사*, 216.

역의 전문성을 함께 나누며 협력하면서 동시에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그들을 사역에 동참시킴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박희민 목사는 나성영락교회가 평신도들을 어떻게 사역의 현장 속으로 동역자로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느냐가 나성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나성영락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목회의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목양하는 ‘분담목회’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나성영락교회의 온 성도들이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력을 배양해 목회자와 함께 제자화 양육에 적극 동참케함으로써 나성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⁶⁹⁾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한 분담목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박희민 목사는 이민 2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들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성취해나가는 은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박희민 목사는 2세 목회를 강조하면서, 이중 언어 목회를 통해 이민 2세들이 비전과 가치관을 세우고, 한인사회와 한인교회의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도록 힘을 쓸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선교를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이 세계선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를 준비시키며, 이민자들의 가정에 있는 갈등과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목회 비전을 제시하였다.

다. 배움의 문화를 통한 사회 기여¹⁷⁰⁾

나성영락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배움의 사역을 통해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기능인 구제와 섬김을 실천하며, 바울이 보여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세워나가고 있다. 3대 목사인 림형천 목사는 특별히 나성영락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선포하며, 교회의 사회 환원을 앞장서 실천하였다. 나성영락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사랑을 나

169) 박희민, *나성영락교회 20년사*, 217.

170) 김호성, “미주한국일보 수요초대석,” *미주한국일보* (2007년 1월 10일).

Online: <http://www.koreatimes.com/article/359016>

누고 세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나성영락교회에서 사역하였다. 그 실례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2주 동안 현장 체험을 하는 '세상 속으로' 프로그램을 나성영락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Love LA'라는 행사를 통해 주일마다 주변의 홈리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등 나성영락교회의 사회봉사 사역을 교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나성영락교회 근처에 있는 히스패닉과 중국인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협력해 바자회 및 장학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수년 동안 지속된 나성영락교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사역을 통해 주변의 교회에도 베푸는 사역에 동역하는 교회와 개인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 밖에 나성영락교회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의 주변과 지역 사회들을 위한 평신도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활동을 제안하며, 나성영락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역 사회를 섬기며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림형천 목사는 나성영락교회가 전통과 방법은 계승하면서 형식은 언제나 새로워야 한다는 교회비전에 바탕을 두고, 세상을 향한 베품의 문화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 문화를 세우는 데 필요한 사역을 감당했다. 즉 나성영락교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맞게 그들을 품고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식을 취하지만 나성영락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과 교회의 원칙을 바르게 지켜나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2. 양육훈련의 특징

나성영락교회 양육훈련은 평신도들이 단순한 훈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삶을 나누는 사역의 기회를 통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성영락교회 양육훈련의 특징을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든 평신도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양육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소명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야한다고 강조한다. 나성영락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은혜의 기능을 불신자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는 사역훈련을 통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성영락교회는 초청된 불신자들이 기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 세례를 받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불신자들이 전도되어 최종적으로 양육훈련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돕는다. 둘째, 나성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즉 나성영락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풍성한 삶을 나누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 성경을 통한 양육과 집회를 통한 양육

바울서신에서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나성영락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한 양육과 집회를 통한 양육을 함께 접목시키고 있다. 즉 나성영락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은 성경공부와 집회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들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평신도를 양육시키는 과정들이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수련회라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 영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훈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성경공부는 1,3,5단계에서 일대일이나 소그룹 강의 혹은 강의와 같은 방식들로 진행되는 과정들인 반면에, 수련회는 2,4단계에서 실행하

며, 토요일과 주일 즉 주말에 걸쳐서 나성영락교회 기도원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통한 양육은 1단계인 새 생명의 삶 과정, 3단계인 성화의 삶 과정, 5단계인 지도자의 삶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와 함께 집회를 통한 양육은 2단계 양육 과정인 내적치유수련회, 4단계 양육 과정인 지도자훈련 수련회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나성영락교회의 양육훈련은 성경공부가 끝나면 집회가 이어지며, 다시 이와 같은 순환을 반복적으로 가짐으로써, 평신도 양육훈련이 전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신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양육

바울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다. 나성영락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양육 프로그램은 교회의 특정한 직분자들에게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 과정을 통해 요구되는 내용과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 성도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른 성도들을 교육하고 지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양육훈련을 마친 성도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섬길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내용, 즉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나성영락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양육을 담당해야 할 성도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영적인 교만을 막으려 노력했다. 이로써 양육을 담당하는 성도가 훈련을 받는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¹⁷¹⁾

171) 림형천, *새 생명의 삶* (서울: 두란노, 2008), 12-13.

3. 은혜와 양육 체계¹⁷²⁾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통해 나성영락교회 양육체계인 ‘5단계 양육’ 과정을 살펴보자. 나성영락교회의 양육 체계는 모든 성도들이 5단계 양육과정을 마치면 다른 지체들을 재생산하는 양육훈련사역의 기회를 열어 놓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불신자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보냄 받은 자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을 열어 놓았다. 또한 2차례의 수련회를 성경공부식 양육 과정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양육 교재의 내용들이 전인격적으로 훈련생들의 삶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나성영락교회의 양육 체계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자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도왔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평신도 지도자로 철저히게 준비되도록 하였다.

나성영락교회의 양육체계의 핵심인 5단계 양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구원의 확신을 목적으로 양육하는 ‘새 생명의 삶’ 과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내적치유수련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성장을 훈련하는 ‘성화의 삶’, 평신도지도자로서의 성품과 헌신을 교육받는 ‘지도자훈련 수련회’, 세상 속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지도자의 삶’ 등의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나성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앙의 기초에서 시작하여 영적인 성장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단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5단계 양육과정의 각 단계별 과정의 특징들과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2) 본 논문에서는 나성영락교회의 양육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3년 나성영락교회에 부임해 2012년도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하였던 림형천 목사가 “모든 나성영락 교인들이 양육자가 되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판한 삶 시리즈 교재들과 나성영락교인의 필수과정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5단계 양육과정’을 조사하였다.

가. '새 생명의 삶'과 은혜

나성영락교회의 '새 생명의 삶' 양육과정은 바울서신에서 은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죄로부터 계속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서 있도록 도우신다는 은혜의 역할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새 생명의 삶' 양육과정은 전도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구역 또는 셀 안에 편성하고, 2개월 동안 담임목사인 림형천 목사가 지은 '새 생명의 삶' 교재를 사용하여, 일대일 양육이나 소그룹 강의를 통해 양육한다. 이를 통해 '새 생명의 삶' 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훈련생들이 8주 동안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새 생명의 삶' 과정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구원의 확신, 세례의 의미' 등과 같은 주제들을 공부함으로써, 죄의 지배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현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게 된다. 특히 '새 생명의 삶' 과정을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는 주제로 시작함으로써, 훈련생 각자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기독교가 삶의 윤리와 밀접하며,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며, 삶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교임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종교임을 제시하며,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강조한다.¹⁷³⁾

따라서 나성영락교회의 '새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 나성영락교회에 방문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확신 등을 갖도록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토대를 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신자로서 나성영락교회에 등록한 초신자들은 새 생명의 과정을 수료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3) 림형천, *새 생명의 삶*, 22-23.

나. 'BC/AD (내적치유) 수련회'와 은혜

'내적치유수련회'는 훈련생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훈련생들을 도우는 과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내적치유 수련회'는 '새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친 후, '성화의 삶' 과정을 받기 전에 갖는 1박2일 수련회로서,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인 구원의 확신과 치유를 수련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배울 수가 있다. 이 밖에 내적치유 수련회가 수련회 일정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¹⁷⁴⁾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불신자들이 내적치유 수련회를 통하여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간증 또는 고백을 통하여 서로 받은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것이다. 둘째, 참석자들이 숨겨왔던 문제들과 아픔들을 수련회 프로그램인 말씀과 기도, 강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형제자매가 되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5단계 양육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내적치유 수련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를 수련회를 통해 경험하도록 돕고,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다음 단계인 3단계 '성화의 삶' 과정으로 인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성화의 삶' 과 은혜

'성화의 삶' 과정에서는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기능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명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즉 '성화의 삶' 과정은 세례를

174) "5단계 양육과정을 통한 비전," 나성영락교회홈페이지. Online: <http://www.youngnak.com/%EA%B5%90%ED%9A%8C%EC%86%8C%EA%B0%9C/%EC%96%91%EC%9C%A1-old.htm> (2014년 2월 인용).

받은 성도들이 2개월 동안 일대일 양육이나 소그룹 강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신자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훈련생으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화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주인 사이에서, 유혹을 이기는 삶,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한 지체로서의 교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섬김이 있는 생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정’ 등과 같은 주제들을 공부한다. 특히 ‘성화의 삶’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은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즉 ‘구원, 신분의 변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소명, 하나님의 동행과 교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 등과 같은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타나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¹⁷⁵⁾

따라서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은 ‘성화의 삶’ 양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재능, 성품, 능력 등을 깨닫거나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영혼을 중요시여기는 영혼구원을 위한 공동체, 가정을 토대로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돕는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¹⁷⁶⁾

175) 림형천, *성화의 삶* (서울: 두란노, 2008), 18-19.

176) 림형천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장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일차적 책임은 자녀들을 한 신앙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며, 진정한 신앙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며, 교회의 지도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영적 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Ibid., 84-89.

라. 'LT (지도자 훈련) 수련회'와 은혜

'LT수련회' 즉 '지도자훈련 수련회'는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기능인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지체들을 권면하는 은혜의 삶을 양육훈련 속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자 훈련 수련회'는 성화의 삶 과정을 마친 성도들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수련회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나성영락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성품에 대하여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된다. 이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평신도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섬기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훈련을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평신도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다짐한다. 이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도자 훈련 수련회'는 참석한 모든 훈련생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의 상황 속에서 나성영락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 '지도자의 삶'과 은혜

나성영락교회의 '지도자의 삶' 단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역하는 평신도 지도자로 임명 및 파송 받기 전 마지막 단계로 받게 되는 양육 과정으로 기간은 2개월이다. '지도자의 삶' 과정을 통하여 훈련생들은 성경공부의 방법을 통하여 예비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의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본받는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도자의 삶’ 과정에서는 ‘진정한 제자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추구해야 할 바른 믿음, 주님의 지상명령, 모범적인 봉헌생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등과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지체들을 권면하며,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훈련받는다. 특히 ‘진정한 제자란’ 주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¹⁷⁷⁾ 이와 함께 ‘추구해야 할 바른 믿음’에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사모하는 은혜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⁷⁸⁾

따라서 ‘지도자의 삶’ 과정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기 위하여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데 꼭 필요한 능력, 방법, 지식 등을 훈련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평신도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다. 또한 ‘지도자의 삶’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목과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훈련과정이다.

바. ‘지도자 세미나’와 은혜

나성영락교회의 5단계 양육과정의 마지막 양육과정인 ‘지도자 세미나’ 과정은 1일 세미나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5단계 양육과정들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양육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양육 교

177) 립형천, *지도자의 삶* (서울: 두란노, 2008), 18.

178) Ibid., 53.

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테스트 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평신도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비전과 사명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역하는 헌신과 섬김을 훈련받게 된다.¹⁷⁹⁾ 특히 과정이 종료될 때에는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주일 예배 때 ‘지도자 세미나’ 과정을 종료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파송식이 있으며, 파송식은 양육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웃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4.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육훈련 및 양육체계의 장단점

나성영락교회의 양육훈련은 바울서신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건설해야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성도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자체사역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나성영락교회의 양육체계는 평신도들이 가정과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양육훈련은 훈련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장점과 단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79) "5단계 양육과정을 통한 비전," 나성영락교회홈페이지. Online: <http://www.youngnak.com/%EA%B5%90%ED%9A%8C%EC%86%8C%EA%B0%9C/%EC%96%91%EC%9C%A1-old.htm> (2014년 2월 인용).

가. 양육체계의 장점

첫째, 은혜의 목적은 성도들 각자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일이다. 나성영락교회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제자화 양육훈련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분담목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이다. 즉 나성영락교회는 ‘분담목회’를 통해 양육훈련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체계적인 5단계 양육과정을 통해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도우며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 사역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나성영락교회 양육체계는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기능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사랑을 통하여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지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¹⁸⁰⁾ 즉 삶 시리즈 성경공부와 수련회 집회를 교대로 사용하는 양육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의 지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전인격적인 양육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성영락교회는 이와 같은 양육체계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함으로써, 훈련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내적인 상황들을 수련회를 통하여 교육 훈련이 끝날 때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80)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택하심으로, 내가 작은 자요 내 몸에 있는 가시도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체험되는 깨우침이며, 둘째로, 내가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더 깊이 고백하는 배움이며,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며, 넷째로, 언제나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게 하시는 늘 새로운 것이다. 림형천, “은혜,” *한마음* (2011년 12월호; 나성영락교회 창립38주년 기념 특집호), 3.

나. 양육체계의 단점

첫째, 나성영락교회의 양육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부름 받은 성도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양육훈련의 각 과정들은 모든 교인들이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세워졌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와 점검, 확인의 프로세스가 담겨진 성경공부 내용들이 양육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교재들 즉 ‘새 생명의 삶, 성화의 삶, 지도자의 삶’의 교재들을 보면, 각 과정이 주제별로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분석과 삶 속에서의 적용 등을 통해, 다양한 각 과정들의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¹⁸¹⁾

둘째, 바울서신에서 은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역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데, 나성영락교회는 양육훈련의 초기 단계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의미와 실천에 대한 교육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양육훈련생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5단계 양육 과정 초기 단계인 ‘새 생명의 삶’ 과정에서부터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복음을 통한 전인적 구원, 분담 목회를 통한 평신도 지도력 개발, 베품의 문화를 통한 사회기여 등과 같은 나성영락교회의 전통적인 교회 비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과정들이 필요한지 양육훈련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는 데에 부족했다.

181) 생명의 삶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시작으로 나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의, 구원과 세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성화의 삶에서는 두 주인 사이에서의 주제를 시작으로 율례를 이기는 삶, 기도와 말씀, 교제와 잃어버린 영혼, 섬김, 가정에 대해 다루었다. 끝으로 지도자의 삶에서는 진정한 제자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장성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바른 믿음, 주님의 지상명령, 봉헌, 지체의식,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제 5 절 소결론

본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인 사랑의교회와 풍성한 교회, 미주한인교회인 휴스턴서울교회와 나성영락교회는 공통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평신도를 세워 그리스도의 사명을 교회 중심으로 감당하는 양육훈련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교회인 사랑의교회는 평신도들이 은혜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따라 인격과 삶을 훈련시키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은사들을 통해 사명자로 살아가는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양육체계로 사용하고 있었다. 풍성한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대그룹모임과 소그룹모임을 통해서, 공예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고 있었고, 불신자를 전도하여 지도자로 만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양육체계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전인적 치유수양회와 은혜의 다양한 기능들을 삶 속에서의 적용과 교제를 통해 배우는 12주 양육반 과정이 있었다. 한인교회인 휴스턴서울교회는 가정교회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성도들이 삶을 나눔으로, 전도, 심방, 상담 사역 등과 같이 교회를 세우며 은혜를 전달하는 평신도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또한 양육체계인 ‘삶 공부’의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은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은혜를 받은 목자들이 세워지도록 돕고 있었다. 나성영락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을 통한 전인적 구원을 기반으로 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담목회’를 통해 이민사회 속에서 배움의 문화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세워져가고 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5단계 양육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이자, 통로로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의 양육체계를 2장에서 살펴본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와 3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을 통해 장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교회, 풍성한교회, 휴스턴서울교회, 나성영락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은혜의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양육체계를 세움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정체성과 삶의 모습들을 훈련받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내세 또는 현세 중심의 편향된 구원의 이해, 복음의 상품화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의 전달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교회비전을 구체화하는 양육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의교회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예배자”로 강조하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성경적인 축복과 교회의 성장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제자훈련을 통해 제시하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에 대한 한국교회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를 해결하였다. 풍성한교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대항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는 과정이 양육체계에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즉 은혜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평신도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통한 영육간의 상처의 치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는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제시해주었다. 휴스턴서울교회는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평신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느끼고, 생활 속에서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인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평신도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었다. 나성영락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양육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훈련시키는 양육의 재생산을 강조하였고,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분담 목회’를 통해 베쁨의 문화로 인한 사회와 문화의 변혁에 기여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의 이와 같은 양육체계는 개인과 사회의 분리, 교회성장 중심 사역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의 부재로 인한 세상과 교회의 단절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2장의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의 고찰들과 3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의 측면에서 바라본 단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교회들의 양육훈련 과정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원의 의미와 사명,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의 정체성과 사명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은혜의 근원이자 대항자이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특징들이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양육훈련을 받는 성도들의 단계에 따라 훈련의 내용들이 단계별로 적용되는 범위와 깊이가 다르게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접근은 어떤 면에서 평신도 안에서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예배의 삶과 헌신의 삶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특정한 대상에게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으로 해석함으로써,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왜곡될 수 있다. 즉 3장에서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로 지적하였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기독교윤리 등이 평신도들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신앙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확인들이 양육훈련 과정 속에 담겨있지 않았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사례교회들의 양육체계들은 다양한 양육훈련의 단계들과 성경공부와 함께 집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칫 교회 공동체의 양육훈련이 성경공부 또는 별도의 집회 훈련만으로 한정되어 양육훈련이 주입식 또는 집회 방식으로 편향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훈련생들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단지 지식적으로만,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감으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이 밖에 성경공부 내용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관해 소그룹을 통해 함께 나눔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양육훈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사례들 또는 삶의 상황들에 대한 현장 속에서의 예들을 양육 훈련 교재에 제공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눔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는 3장에서 한국교회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로 지적하였던 교리지상주의의 문제점, 즉 교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상황들 속에 담겨진 진실한 삶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

적으로 앞에서 다루었던 사례교회들의 양육체계는 오늘날 성도들이 날마다 마주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난제들이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실제 상황들을 주제별로 양육훈련 프로그램에 담지 못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살펴본 사례교회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동시에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수여자이자 대행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특징들을 통해 어떤 정체성의 특징들을 통하여, 삶 속에서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의 범위를 뛰어넘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역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평신도 양육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특징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특징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수여자이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이 오늘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양육모델 속에 구체적인 현장의 정보들이나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인한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없는 값싼 은혜, 교회의 세속화 등과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삶의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줄 것이다.

제 5 장

지역교회를 위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모델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를 다룬 2장과 ‘한국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를 고찰한 3장을 통해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은혜는 은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통전적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수여자이자 대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본받아 개인적인 생활, 교회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난 은혜의 통전성에 따라 종말론적 긴장의 삶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소망하는 기독교적 윤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장에서는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평신도 양육체계를 통해, 사례교회들이 평신도들을 교회공동체 속에서 세상을 향해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어떤 교회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평신도들을 어떻게 양육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은혜의 수여자이자 대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 나타난 은혜의 수여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은혜의 통로로서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3장에서 분석한 한국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평신도 양육모델은 4장의 사례교회들의 양육체계들의 장점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힘썼다. 여기서는 실제적인 15주 평신도 양육훈련의 일정계획을 함께 제

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교회 비전 (뼈대세우기)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훈련은 15주에 걸쳐서 대그룹이 아닌, 12명 이하로 구성된 소그룹모임의 나눔과 전체 발표를 통해 평신도 양육훈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훈련 관계자들과 훈련생들이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을 1주차에 갖는데, 이때 모임의 일정과 과제를 설명하고, 1대1 개인 멘토, 강사 및 훈련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¹⁸²⁾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난 후, 평신도 양육훈련 2주차에서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은혜를 통한 현재의 삶과 구원의 소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주차에서는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처럼 교회의 주체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평신도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소개하는 뼈대 세우기 과정이 진행된다.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평신도 양육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나아갈 평신도 교회 비전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현재의 삶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회 변혁을 위한 교회 문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인들로 구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비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육훈련을 담당하는 평신도 훈련담당자는 본 논문의 제2장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가 담긴 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본문 중에 제시된 성경구

182) 앞으로 사용되는 양육훈련 담당자, 지도자는 ‘평신도’ 사역자를 가리킨다. 평신도 양육훈련 담당자는 양육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담임목회자 또는 교역자와 함께 양육훈련 내용과 일정에 대한 점검을 갖도록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로, 목회자의 인도하에 본 논문의 2장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 3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단계로는 양육훈련 담당자의 주도하에 4장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평신도 양육체계분석”, 5장 “지역교회를 위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 방안”을 기초로 양육훈련계획을 발표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양육훈련 기수가 진행되어가도 훈련의 목적과 내용이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잘 전달되도록 한다.

결과 함께 훈련생들에게 미리 연습하고 이해한 후에 수업에 들어오도록 요구한다.

평신도 양육훈련에서 이와 같이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하여 교회 비전을 평신도들에게 제시하는 과정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복음을 상품화하는 한국교회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접근이다. 또한 4장에서 사례교회들의 약점으로 제시한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은혜의 근원이자 대행자이신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연결시켜 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혜의 수혜자에 대한 이해¹⁸³⁾: 은혜의 목적을 중심으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교회 비전을 세우기 위한 평신도 양육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인 평신도들이 은혜의 목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즉 교회의 비전은 평신도들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를 두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은혜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지역교회의 교회 비전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라는 전제 하에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목적에 비추어서 세워져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3)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기대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 더 많은 감사를 기대하게 되고, 둘째,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선택들에 대해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며, 셋째, 인내심이 커지고 다른 이들과 비생산적인 논쟁 또는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이 감소할 것이며, 넷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Charles R. Swindoll, *The Grace Awakening* (Dallas, TX: Word Pub., 1990), 13.

가. 현재 삶 속에서 구원의 영향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양육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훈련시키는 일이다. 평신도 훈련담당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들을 성도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재 삶 속에서 구원의 영향에 관한 양육을 통해 3장에서 다루었던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 즉 내세를 강조하는 내세 중심의 편향된 구원 이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교회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할 비전에는 현재 성도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예리할수록,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난다는 것을 담아야 한다(롬5:20). 그러나 이때 평신도 양육담당자는 3장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의 위험이 훈련생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즉 성도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훈련 담당자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성도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전제될 때, 죄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비전은 성도들의 죄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이며, 교회는 어떠한 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으며, 현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임을 전달하게 된다. 특히 성도들의 신앙 회심과 은혜의 회복 등을 양육 교재 서두 부분에 제시함으로써, 평신도를 위한 교회의 비전이 현재 삶 속에서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성도들의 현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공동체 비전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다(롬11:5-6).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은 평신도로 하여금 그들의 현재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훈련 담당자는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훈련생들의 상황들과 생각들을 함께 분석하고 나눔으로써, 훈련생들의 현재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소망 가운데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기

평신도들에게 은혜의 수혜자로서의 인식을 심고 양육해 가기 위한 교회 비전의 두 번째 과정은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최종적인 소망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신도 양육을 위한 교회의 비전은 3장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물질만능주의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갖게 된 현세 중심의 편향된 구원 이해로 인하여 교회공동체가 변영신학과 기복신앙과 같은 잘못된 구원의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비전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도록 평신도들을 권면하는 것이다(롬5:2). 평신도 훈련담당자는 2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바울서신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변화된 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은혜의 통전성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훈련 담당자는 비전을 통하여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세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없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가까워왔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변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성취되는 때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생들을 양육한다.

둘째,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야 한다(골1:27).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훈련생들은 그들의 수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회의 비전을 통해 평신도들은 바울이 보여준 은혜의 통전성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은혜의 통로로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화려한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결과 바울 자신에게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을 배워야 한다. 이와 함께 훈련생들은 교회의 비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즐거워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지혜를 통해 ‘바로 지금’ 시작됨을 인식한다.

2.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인식

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반영하는 평신도 목회 철학과 이에 기초한 교회 비전을 분명히 인식케 하기 위한 양육 모델의 두 번째 단계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삶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일이다. 즉 양육담당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대행하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다. 이를 2장에서 살펴본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 속에 나타난 은혜의 목적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일하는 성도들 (고전15:10)

양육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 교회의 비전은 평신도들을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세워져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역철학을 통해 평신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나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훈련담당자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을 깨끗이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의 통전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은 3장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로 삼았던 세속화에 편승하는 값싼 복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평신도들이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돕게 된다.

(2) 자기 의가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성도들 (롬15:15-16)

평신도들의 비전은 바울과 같이 사역은 자신의 자랑거리나 자기 의의 근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 즉 양육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현재 은혜로 구원 받은 자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받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교회의 평신도 비전은 어떤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은 성도들 뒤에 계셔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도록 권면하는 교회의 비전은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값싼 은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나. 지체들과 사명을 나누며, 사회 변혁을 위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

평신도 양육훈련 담당자는 평신도들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역하는 것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나누며,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의 비전은 지체들과의 교제와 사명을 나누며 함께 돕고 세워주는 사역이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데에까지 나아가도록 세워졌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실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은사를 통한 섬김의 사역 (고전12-14장)

양육훈련에서 제시되는 교회의 비전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통해 지체들과 사명을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다음과 같은 섬김의 사역의 분야들이 담겨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사역, 전화로 성도들을 심방하는 사역, 그룹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역,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 전도 그룹을 조직하는 사역, 환자나 노약자들을 방문하며 위로하는 사역, 교회와 문화 사역의 행사들을 기획하며 인도하는 사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¹⁸⁴⁾

따라서 지역교회의 비전은 평신도들이 지체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함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동역자로서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서 살펴본다면, 평신도들이 서로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경본문 엡4:11-14과 고전14:26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세미나를 갖거나 은사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한다.¹⁸⁵⁾ 이를 통해 평신도들은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사역 현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지

184) Bill Donahue,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143.

185) Ibid., 142.

역사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비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2) 불신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만들기 (롬1:5)

교회의 비전은 교회 공동체가 사회 변혁을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이 스스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¹⁸⁶⁾ 평신도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3단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웃들의 장례식에 조문하기, 지역 주문들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기, 지역 주민의 출산 가정에 선물하기, 새로 전입 온 가정에 선물하기,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행사에 축의금 전달하기, 어려운 이웃에 과일 바구니 선물하기, 사랑의 쌀을 노인과 소년소녀 가정에 전달하기 등이 해당된다.¹⁸⁷⁾ 2단계는 지역사회가 교회 안에서 공동으로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원을 교회 안에 설치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출해주는 섬김 은행 세우기, 주민들의 정신문화 운동을 위한 독서실 운영하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노인대학 세우기,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장치 열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역에 심기 위한 지역신문 만들기, 치매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하기, 독거노인가정을 위한 밀반찬지원센터 만들기 등이 있다.¹⁸⁸⁾ 3단계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섬김의 사역을 해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위탁 받아 시설을 운영하기, 장애 노인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참여하기, 요양원 설립하기, 소그룹 노인복지주택 만들기, 지역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을 열기 등이 있다.¹⁸⁹⁾

따라서 양육훈련 담당자는 교회 비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

186) 박귀동,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서울: 이오컴, 2011), 240-241.

187) Ibid., 243-246.

188) Ibid., 264-280.

189) Ibid., 287-296.

를 통해 은혜를 전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평신도들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들의 은사에 가장 적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즉 훈련생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사회 변혁을 위한 공동체 문화를 다양한 문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세울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것이 교회 비전임을 강조하도록 한다.

제 2 절 양육 훈련의 원칙들 (뿌리내리기)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훈련의 4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1절에서 다룬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교회비전’에 이어 다음 단계로 양육훈련의 원칙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평신도 양육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평신도를 양육하기 위한 훈련의 원칙들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평신도들을 위한 양육 훈련의 시작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연관성을 통해 평신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시하는 순서를 통해 세워져야 한다. 즉 본 양육훈련의 원칙들은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은혜의 근원이자 대행자이신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연결시켜 정립하는 과정이다.

양육훈련을 담당하는 평신도지도자는 본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이 훈련 내용에 대한 깊은 나눔과 토론을 위해서, 본 논문의 제2장 “바울의 은혜의 통전적 이해”가운데서 제2절 “은혜의 수여자이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 제3절 “은혜의 수혜자이자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본 논문의 25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본문 중에 제시된 성경구절과 함께 훈련생들이 충분히 예습해오도록 강조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하여 3장에서 살펴본 한국교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잘못된 은혜에 대한 교리의 문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개인중심의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의 문제를 해결하며, 4장에서 사례교회들의 약점으로 제시한 단계별 양육훈련의 내용에 대한 오해 즉, 평신도들 간의 훈련과정에 따라 다른 예배의 삶과 헌신의 삶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통전성에 근거하여 풀도록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양육훈련 4주차와 5주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4주차에는 은혜의 수여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5주차에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펴본다. 이처럼 양육훈련 담당자가 평신도들을 양육 훈련시킬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적용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을 양육시키는 평신도 사역자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여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대행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설명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는 대행자이심을 제시해야 한다. 평신도들에게 양육훈련 원칙들로서 제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은혜의 수여자, 대행자

지역교회의 평신도 양육훈련 4주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즉 은혜의 수여자, 대행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의 강조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두 가지 핵심들을 다음과 같은 필요를 설명하고 방법들을 사용한다.

(1)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겪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신도들은 부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는 비성경적이며, 건강과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의 희망과 능력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⁰⁾ 그러나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신도들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시작됨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사역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예배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대신 죄를 지시고 ‘값없이’ 성도들을 구속하신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신도를 향한 양육훈련은 평신도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희생하셨다는 것을 교육할 때 3장에서 다룬 한국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세상 가치의 침투와 이로 인한 복음의 상품화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양육훈련 담당자가 제시해야 할 훈련은 은혜를 통해 평신도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속죄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훈련생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룹별로 나누며, 발표하는 일이다.

(2)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은혜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 가운데 하나인 복음의 상품화는 종교 다원주의적 상황 속에서 세속화된 세상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은혜의 대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들을 변질시키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 양육의 원칙으로 평신도 지도자가 강조해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은혜

190) 옥한흠,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238-329.

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이다. 즉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구원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대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은혜의 대행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임을 알린다.

이를 위해 양육훈련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훈련 과정을 통해 나누도록 이끌어야 할 내용은 훈련생들이 지금까지 스스로의 노력들을 통해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한 적은 무엇 때문이었으며, 어떤 일이었는지,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나게 된 변화들은 어떠할지 함께 점검하도록 한다.

나.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

양육훈련 5주차에 훈련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5주차 훈련 모임에서 양육훈련 담당자는 은혜의 수여자로서, 은혜의 대행자로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들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교육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

5주차 양육훈련 모임 때, 양육훈련 담당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한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이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론적인 교육으로는 훈련담당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바울서신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땅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실천적인 훈련으로는 바울의 서신서인 고전15:57-58의 말씀을 조별로 훈련생들이 함께 읽으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흔들리거나 좌절을 느낀 때는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의 삶을 경험한 것은 언제였는지에 대하여 나눔을 갖도록 한다.

(2)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됨

5주차 양육훈련 모임 때, 두 번째로 양육담당자가 평신도들에게 훈련시켜야 할 내용은 둘째 아담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즉 양육훈련을 통하여 평신도들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인류인 아담의 범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살려주는 생명이신 둘째 아담 혹은 성도들을 살려주는 산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 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된다. 이론적인 훈련으로는 첫 번째로 아담의 원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임을 비교하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원죄를 통해 인류가 받게 된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소개하는 내용을 담는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의 통전성에 비추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한다.

실천적인 훈련으로는 평신도 양육담당자의 인도로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 고전15장의 말씀(22,45절)을 조별로 훈련생들이 함께 읽은 후, 먼저 아담의 원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아담의 원죄가 온 인류에게 미친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불신자들의 반대들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나눔

의 시간을 가진 후, 조별 발표를 하도록 한다.

(2) 주: 종의 형태로 출생, 겸손의 삶을 통한 자기 비하, 십자가 죽음 및 승귀

5주차 양육훈련 모임의 마지막 교육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이때 평신도들은 양육훈련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주이시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이론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을 밟도록 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땅위에 태어나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를 입으신 성도들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비하를 몸소 보여 주셨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 이를 통하여 훈련담당자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로써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도록 하시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실천적인 훈련으로는 고전2:2, 갈3:1, 5:24, 6:14을 훈련생들이 함께 읽고, 각 구절들을 조별로 나누어 심층 분석 및 토론을 하도록 한다. 특히 바울은 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려 했는지, 이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당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성도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버린 성도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보고,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겸손과 자기비하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에 대해 은혜의 통전적 관점에 비추어 조별 발표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2.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

양육훈련 6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평신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보는 단계로, 평신도 훈련담당자는 6주차에는 '은혜의 수혜자, 전달자로서의 평신도'를 교육하고, 7주차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평신도'를 교육한다. 8주차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에 대해 훈련받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은혜의 수혜자, 전달자

양육훈련 6주차 모임 때, 훈련생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과 관련하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양육 받는다. 이론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내용에 집중하도록 한다. 즉 양육담당자는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해와 신약에서의 성도의 의미를 언약적인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은혜의 통전적 이해를 통해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도록 양육한다.

실천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평신도 훈련담당자는 뱀전2:9의 말씀을 3단계에 걸쳐서 조별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1단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은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훈련생 각자의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2단계에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별로 기록하도록 한다. 3단계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든 훈련생들이 2인1조의 형태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나.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종

양육훈련 7주차 모임 때, 훈련생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신도들은 세 가지를 훈련받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둘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자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며, 셋째, 평신도들이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훈련받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삶,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

7주차 양육훈련 모임 때, 평신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음을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된다. 즉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리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동료 훈련생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 배우게 된다. 특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어떠한 사역을 삶의 현장 속에서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양육담당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는데, 훈련생들은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익을 따라 살아감으로 장차 오게 될 하나님나라의 영광된 미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2)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

7주차 양육훈련 모임의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사명이다. 훈련생들은 이론교육을 통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원죄를 십자가의 대속죽음의 은혜를 통해 사하시고, 살려주는 영을 내려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훈련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함과 함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할 새로운 변화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훈련생들이 날마다 만나게 되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과제물을 통해 1주일동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과제물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사의 고백은 언제 나왔는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달은 지혜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제물 안에는 일시, 장소, 대상, 방법, 새롭게 깨달은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양육 모임 때 발표 및 제출할 수 있도록 Letter 용지 2장 분량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3)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7주차 양육훈련 모임의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이다. 훈련생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알아야 할 정체성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성경적인 모델들을 배우게 된다. 이때 이론적인 교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가 되신 내용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실천적인 교육으로, 평신도 양육담당자는 훈련생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을 때 발견하였던 은혜의 기쁨과 능력들을 발표하게 하고,

Letter 용지 1장 분량의 과제물을 통하여서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나의 불순종’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밖에 훈련생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하는데, 이때 중요한 원칙인 성령의 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8주차 양육훈련 모임에서 다루게 된다.

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양육훈련 8주차 모임은 두 가지의 주제로 진행된다. 그 중 첫 번째인 그리스도의 법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과정은 7주차 모임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 세상 속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론적인 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다루게 된다. 특히 양육훈련 담당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배려와 겸손으로 지체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평신도 지도자는 이 훈련 모임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 나타나는 육신의 소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져가게 되는지를 교육한다.

실천적인 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3단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1단계로 지금 공동체 내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 지체들을 기록하게 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게 한다. 2단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성령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펴본다. 3단계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스스로가 그들을 비난

하는 문제들과는 상관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둘째,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들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지 점검한다.¹⁹¹⁾ 조별 모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양육훈련을 통해 먼저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체들과 지속적인 관계성을 통해 서로 협력하도록 훈련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과정의 실천적인 훈련이 끝날 때에는 평신도들에게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를 맺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라.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

양육훈련 8주차 모임의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다. 8주차 모임에서는 훈련생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과 평신도 사역자로서 지체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각인시키는 훈련이 주요 포인트이다. 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훈련생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에 열정을 가지도록 양육될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제자도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교회가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인 훈련과 실천적인 훈련을 병행한다.

191)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갈5:22-23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제시한다. 특히 바울은 갈6:1-5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이 아닌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관계와 자신을 살펴보는 겸손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교회공동체를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1)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삶

8주차 양육훈련 모임은 훈련생들이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다양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훈련생들이 일차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을 훈련 받는 일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교회공동체의 영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핵심을 훈련생들에게 제시함으로, 교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인식이 교회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구원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신체적 차이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유기체임을 평신도 훈련 담당자는 훈련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실천적인 교육 파트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각자의 비전 또는 삶의 목표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얼마나 나누어졌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달하기 위해, 지체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포할지를 놓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현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눔을 가지고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마지막 훈련은 훈련생들에게 지역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사역, 훈련,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2)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

8주차 양육훈련 모임의 마지막 주제는 ‘세상 속에서 교회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훈련생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교회공동체를 뛰어 넘어 세상 속에서 나타내도록 훈련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평신도 양육담당자는 두 가지 소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는 훈련생들이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삶의 자세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공동체가 거룩한 신앙의 순결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치리를 해야 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

해 필요한 전도의 원칙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가) 세상 속에서 공동체 문화를 이루기 위한 순전함과 진실함

훈련생들은 8주차 양육훈련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칙들은 무엇인지 교육받아야 한다. 양육담당자는 이론적인 훈련으로는, 1단계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2단계로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도록 한다.¹⁹²⁾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과 죄악 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순수함을 가지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행동에서도 진실하게 순수함을 가져야 함을 설명한다.

실천적인 훈련으로는, 먼저 과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적은 언제였는지, 어떤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못했는지 조별로 나눔을 갖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문화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었으며, 세상 속에서 세속화의 가치에 의해 과거에 가졌던 문제들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훈련생들에게 나타날 변화들은 무엇인지, 자신이 꿈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삶은 무엇인지 Letter 용지 2장 분량으로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로서의 나의 미래’란 제목의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192)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때에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자기부인”, “사치와 방종의 부제”,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별”, “고결한 대화”, “인내와 겸손” 등은 오늘날 세속화와 물질만능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고상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표준을 세우고, 날마다 경건과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철저한 경건생활을 통하여 롬8:13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에 따라 육체의 소욕에 대항하며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표준이 될 수 있다. 박동국, “바울의 성화론 내에서의 ‘몸의 행실 죽이기’(롬8:13)” (Ph.D.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 2009), 427.

(나)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한 치리와 전도

8주차 양육훈련 모임의 마지막 주제인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으로 훈련시켜야 할 내용은 ‘치리와 전도’이다.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훈련생들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공동체는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곳은 아니지만, 이와는 반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세속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훈련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평신도 양육담당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순결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현재 사회 속에서 비난받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과 함께 예로 들어 설명한다. 특히 성적인 음행과 물질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끝으로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며 잘못된 믿음과 행동에서 지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도의 대상인 불신자들을 교회 내의 신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동체문화를 이루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분리되어 은둔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게 되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실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담당자는 1단계로 훈련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문화를 세우거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세상 속에서의 불이익과 고난은 무엇인지 조별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이때 훈련생들에게 바울서신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2단계로 현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 규범과 원칙들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실천적인 훈련을 마치면서, 훈련생들에게 교회공동체의 치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근거를 통해야 하며, 정당한 권징을 통해 교회의 하나 됨이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에 의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린다. 끝으로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판단하여 심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 3 절 양육 훈련 모델 (열매 맺기)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15주 평신도 양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열매 맺기’ 과정은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이다. 9주차에는 소명의 재확인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 회복하기를 훈련받고, 10주차에서는 중말론적 긴장과 고난에 대한 대처를 통해 개인의 삶을 점검하며, 11주차에서는 중보기도와 헌금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해 공부하며, 12차에서는 융통성과 배려, 감사와 격려라는 기준에 의해 이웃을 향한 평신도들의 성품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13주차에서는 분담목회의 이론과 실제, 전도훈련, 영성훈련에 대해 나눔을 가지며, 14주차에는 훈련생과 예비훈련생이 함께 하는 1대1 개인 멘토링 교육,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 훈련하며, 15주차에는 평신도 지도자 임명 및 파송식을 통해 양육훈련을 종료한다.

본 절에서는 지역교회에서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통전성을 통하여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양육 훈련의 실제 모델을 두 단계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은혜의 통전성 차원에서 평신도 개인의 신앙과 생활을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개인으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앞에서 살펴본 사례 교회들의 양육훈련 내용과 방법들을 보완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교회의 양육훈련이 세상 속에서 평신도들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필자의 양육훈련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신도 양육훈련 담당자는 이 단계에서 본 논문의 제3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 제4장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평신도 양육체계 분석”을 예습하도록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은혜에 관한 오해들과 주변 사례교회들의 양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훈련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따라서 본 양육훈련 모델은 3장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로 지적한 개인과 사회의 분리, 기독교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과 교회가 단절되는 현상

들과 4장에서 사례교회들의 약점으로 언급한 성경공부 방식의 주입식 훈련방식의 문제, 은혜를 전달하는 삶이 훈련기간 동안 동반되지 않는 훈련방법의 문제, 영성훈련이 별도의 집회 방식으로 분리됨으로 지식 전달에 집중하는 성경공부 방식의 문제,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실천적 오류의 사례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의 부재,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지수 점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신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점검 및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은 양육훈련 9주차에서 12주차에 해당된다. 3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 회복하기: 소명의 재확인을 통한 관계의 회복

양육훈련 9주차 모임에서는 평신도들이 앞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사명 즉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한다. 이를 위한 양육 훈련의 모델로서 첫 번째 단계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일이다. 훈련생들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은혜의 기쁨 즉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소명의 재확인을 통한 하나님과 성도 개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때 양육담당자가 훈련생들에게 점검해야 할 사항은 소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훈련생들은 스스로에 대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소명은 앞에서 살펴본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은혜의 통전성의 원리와 같이 개인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뛰어 넘어 교회를 기반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단계별 내용들¹⁹³⁾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할 내용들¹⁹⁴⁾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개인의 소명.

개인의 소명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명,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분별하는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통한 소명,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통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열정과 기쁨으로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소명 등이 있다. 개인의 소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은 평신도들이 개인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라’는 말씀(고전3:23, 뱀전2:10, 요8:47)에 순종하고 있는 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개인의 소명에 관한 사례로 양육담당자가 소개할 것은 직장 생활 속에서 음주 문제와 유흥 접대로 인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몇몇이 밝히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따라감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이전 훈련생들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모은 이야기들이나 인터뷰 영상 자료 등을 훈련 중에 소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장동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평신도 개인의 소명이 어떻게 위기를 맞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유흥을 피하고 깨어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훈련생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들과 함께 비교 발표하도록 한다.

193) R. P.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1), 99-108.

194) Ibid., 106-107.

(2) 두 번째, 공동체를 향한 소명

평신도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의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덕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 성도들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양육담당자가 공동체를 향한 소명이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의 예배와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감사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고,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들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들이 모든 예배와 교제의 최종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향한 소명의 사례로 평신도 양육담당자가 소개할 것은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인하여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의 가치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아, 교회공동체 밖에서 나누는 모든 교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는 사례들과 전도의 목표숫자를 이루기 위해 세속적 가치관을 교회로 들여와 복음의 상품화와 같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불신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예배와 교제 프로그램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도록 한다.

(3) 세 번째, 세상을 향한 소명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교회공동체와 함께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특히 지역교회는 이를 위한 성경적 근거로 평신도들에게 구약성경의 시작부분인 창1:27-30에서 하나님께서 테초에 아담에게 창조명령을 주셨던 것과

신약성경의 첫 복음서인 마28:19-20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와 세상을 섬기는 대위임령을 통해 새로운 창조 명령을 주신 것을 제시한다. 세상을 향한 소명이 평신도들의 현재 삶 속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섬기는 자로 날마다 겸손의 삶을 직장 삶과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겨 주신 섬김의 모습들이 현재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평신도 양육 모임 속에서 나누도록 한다.

세상을 향한 소명의 사례로 평신도 사역자가 소개할 것은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기업 윤리와 불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장로 직분의 대기업 회장,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과 기업인으로서 과거의 부도덕한 사건들로 인하여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기준에 대해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 정치인에 관련된 비난 글을 제시하며,¹⁹⁵⁾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도록 한다. 특히 창조명령과 대위임령의 새창조 명령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은 삶과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도록 한다.

나. 개인의 삶 점검: 종말론적 긴장의 삶과 사명을 위한 고난

양육훈련 10주차 모임에서 평신도들을 위한 양육 훈련은 소명의 재확인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회복과정을 가진 후에,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생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점검한다.

195) “이랜드 비정규직에게도 봄은 오는가? 1,” *삶의 길목에서* (2008년 2월 18일). Online: <http://blog.daum.net/jshsalm/12308062>; “신정아의 도덕적 기준 vs ‘교회 장로의 도덕적 기준,’” *LA별곡* (2007년 9월 20일). Online: <http://yopangyopang.tistory.com/127>.

(1) 첫째, 종말론적인 현재 삶의 점검

10주차 모임에서 먼저 다루어야 할 주제는 종말론적인 현재 삶의 점검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신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핵심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미)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살아감과 동시에 다시 오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평신도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육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며,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들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인도자가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2인1조 방식의 조별 모임을 통해 깊이 있는 주제 토론을 갖도록 한다.

종말론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 및 조별 나눔을 진행하기 위해 평신도 양육담당자가 사례로서 먼저 소개할 것은 어떤 항공회사에서 비행기를 운항할 때 조종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휴거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경영지침에 관한 이야기이다.¹⁹⁶⁾ 양육훈련 담당자는 이 사례를 제시하면서 훈련생들이 옆의 훈련생과 짝을 이루어 각자의 직장 또는 이웃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한다. 첫 번째 사례의 나눔이 끝난 후,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것은 고아원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변화이다.¹⁹⁷⁾ 자신의 장난감을 혼자만 독차지하거나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는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부모의 약속을 믿게 될

196) 이 사례에 등장하는 항공기 회사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의 종교를 점검해 휴거를 믿는 크리스천 기장들이라면 휴거를 믿지 않는 조종사들과 함께 운항할 수 있도록 해서 조종사들이 한꺼번에 휴거되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강명옥, *양육리더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221.

197) 집안이 어려워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겨놓았던 한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에게 며칠 뒤면 서류가 정리되므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는 부모님의 약속을 믿는 아이는 그때부터 주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집착하던 장난감과 옷을 나누어 주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소망에 기뻐하였다. Ibid., 222-224.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훈련생들이 자신의 직장 and 사회생활 속에서 이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자신의 위치와 유익을 위해 내려놓고 있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는 이처럼 나의 직장 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또한 편협한 구원론에 사로잡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내세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이 땅에서의 삶에 구원의 절대적인 의미를 두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2) 둘째, 사명을 위한 고난, 눈물, 그리고 사랑

10주차 양육훈련 모임의 두 번째 주제는 사명을 위한 고난과 눈물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 과정은 양육담당자가 훈련생들에게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지체들을 위한 사랑으로 인해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훈련생들은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육체의 유혹과 소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뻐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눈물과 근심은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기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즉 평신도들은 양육훈련을 통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에 동참하게 될 때 깨달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눈물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배워야 한다. 이밖에 그리스도인들이 누

리는 자유는 육체의 정욕과 기회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임을 교육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사례로서 평신도 양육담당자가 소개할 것은 “그 청년 바보의사”에 소개된 안수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달할 내용은 병원 인턴으로서 의료 파업시 다른 모든 동료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안수현은 동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혼자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본 이야기이다. 또한 입원한 중환자들의 병실에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 신앙적인 조언과 기도를 통해 환자들을 돌본 실제 일화를 전달한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자신의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이들을 눈물과 사랑으로 섬겼던 그의 고백을 나누도록 한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역류함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은 그의 고백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다. 공동체 생활 점검: 중보기도와 헌금

양육훈련 11주차 모임은 훈련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보기도와 헌금에 대한 생활을 점검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음 선포를 통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중보기도

훈련생들은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사역에 동역하기 위하여 지역 교회의 중보기도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복음을 통한 은혜의 전달에 대한 공감대가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신도들은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공동체의 목표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중보기도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에 대해 함께 토론을 갖도록 한다.¹⁹⁸⁾ 또한 롬1:8-15에서 바울은 교회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의 중보기도 모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지 각자 기록하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한편 중보기도 훈련을 통한 공동체 생활의 점검을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화해’와 ‘용서’로 섬기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바울이 고린도교회로 인하여 격정과 고통을 겪었지만, 바울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간 것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려는 바울의 자기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평신도들에게 제시하며, 이를 위해서 평신도 양육담당자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훈련생들이 그리스도의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보기도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양육담당자가 소개할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알려진 김하중 전중국대사의 이야기이다. 토론 내용은 김하중 장로가 중국대사로 근무하면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난제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중보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사관 직원들과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사례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대사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중국 관리들을 포함한 일반 중국인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였던 사례를

198)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Jeff Caliguire, *사도 바울의 리더십 비밀*, 131.

전달하고, 이에 대해 훈련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끝으로 훈련담당자는 중보기도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 속에서의 다양한 고민을 풀어주고, 그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었던 김하중 대사의 사례와 훈련생들의 삶을 비교하며 발표하도록 한다.

(2)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헌금

평신도 양육훈련 담당자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도록 중보기도와 함께 헌금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교육한다. 훈련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성도들이 연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평신도 양육훈련은 훈련생들이 지체들을 향한 풍성한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위한 연보를 통해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직¹⁹⁹⁾과 투명²⁰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은 깨끗한 헌금을 통하여 헌금이 복음 전파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양육훈련 지도자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얻게 된 헌금을 통해 공동체 내의 지체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평신도들은 자원하는²⁰¹⁾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헌금을 하도록 교

199) 김덕수는 진실은 신뢰를 쌓는 기본 원칙이며, 신뢰가 쌓이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영향력이 강화되어 구성원에 대한 변화가 가속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김덕수, *리더십 다이아몬드*, 124-25.

200) 김덕수는 영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삶에 자기 통제력을 갖추어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즉 개인 삶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사적인 영역이 줄어들고 공적인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Ibid., 144-45.

201)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명령이 아닌, 사랑에 근거한 리더십을 통해 교훈하였다. Robert Banks and Bernice M Ledbetter, *신앙의 눈으로 보는 리더십 (Reviewing Leadership: A Christian Evaluation of Current Approaches)*, 황의부 역 (서울: 살림, 2008), 67.

육받아야 한다. 또한 양육 담당자는 기쁨으로 헌금을 평신도들이 자원하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따라서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의 헌금은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헌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훈련의 도구로서, 성도들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값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교육한다.

헌금생활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양육담당자가 사례로서 소개할 것은 매달에 한 번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노약자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위한 특별 헌금을 내고, 각 구역이 맡은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현장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는 평신도 중심의 은혜 전달 사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교회로 녹양교회이야기를 담은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책을 소개하며,²⁰²⁾ 미래에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 남선교회에서 추진한 은혜 전달 사역 즉, 인근 지역의 결손 가정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장학금을 전달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때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위해 인근 학교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끝으로 여전도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거나 헌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보육원과 양로원에 교회 부서의 이름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사역을 소개한다.²⁰³⁾ 양육담당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한 후, 조별로 각자의 헌금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나누도록 한다.

202) 본 책은 교회는 불신자들과 지역사회를 향하여 기독교문화를 통하여 섬기는 “지역사회 중심의 삶의 센터”가 되어야하며, 녹양교회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실제로 사역한 30년간의 경험을 담았다.

203) 박귀동,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254-256.

라. 이웃을 향한 성품 점검: 용통성과 배려, 감사와 격려²⁰⁴⁾

양육훈련 12주차 모임에는 훈련생들이 소명의 재확인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 회복, 종말론적 긴장을 통한 고난의 이해, 은혜의 전달을 위한 중보기도와 연보의 훈련 등을 거친 후에,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용통성과 배려, 감사와 격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1) 행동의 용통성과 배려

양육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즉 양육 담당자는 공동체 지체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용통성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²⁰⁵⁾ 특히 평신도들은 불신자인 이웃에게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그들이 나타내는 행동과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훈련담당자는 이웃을 향해 평신도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다양한 성향과 배경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용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배려하는 자세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즉 훈련생들이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감싸 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신도들은 용통성과 배려의 성품들을 통해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수행해야 하며,

204) 김덕수는 팀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팀원들은 기독교적 진성성과 성품, 세상 문화와 현실에 대한 감각 등이 균형잡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덕수, *리더십 다이아몬드*, 254.

205) 바울은 공동체 내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이 가까이 절제와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Caliguire, *사도 바울의 리더십 비밀*, 192.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훈련생들이 이웃을 향한 성품으로 행동의 융통성과 배려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양육담당자가 소개할 것은 평신도들의 직장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즉 불신자들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조직생활 속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 속에 융통성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 속에서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평신도훈련 졸업생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특히 보다 효율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장이나 현장 속에서 신우회를 조직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이 밖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타종교를 믿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긍휼의 마음이 없거나, 그들과 대화도 가져보지 않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사탄이나 마귀의 자식이란 말을 직설적으로 하거나, 저주받은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함으로 그들이 마음을 닫고 기독교인들을 향해 비난과 핍박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특히 3장에서 제시한 교리지상주의의 문제와 같이 교리의 원칙에 따라 이웃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문자적 의미만을 강조하는 사례들을 알리고, 실제로 훈련생들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대일로 나누도록 한다.

(2) 선한 말을 통한 감사와 격려

평신도들은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적절하게 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즉 양육훈련은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통하여 이웃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특히 양육 담당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찬송, 감사, 기쁨이 넘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훈련시킴으로써, 평신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웃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인도한다. 또한 훈련담당자는 평신도들이 하나님께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

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평신도 양육담당자는 본 양육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전달자로 사역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훈련생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선한 말을 통한 감사와 격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사례로서 평신도 양육담당자가 소개할 것은 이지선 자매의 고백이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가 힐링캠프에 나와 고백했던 동영상을 훈련생들과 함께 시청하며,²⁰⁶⁾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전달하는지를 나누도록 한다. 특히 24살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신3도의 화상을 입는 고통과 절망을 딛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빵을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자매의 고백을 제시하고, 훈련생들은 삶 속에서 선한 말을 통해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격려의 삶을 살고 있는 이지선 자매의 고백과 비교하여, 훈련생들은 어떤 격려를 주변사람들에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특히 앞으로 위대한 기적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이지선 자매의 소망과 감사를 통해 믿지 않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녀를 위로하며 격려해주고 함께 웃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옆에 있었다는 사례를 전달하고, 훈련생들이 이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도록 한다.

206) “따스한 울림, 작가 이지선 편,”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013년 9월 9일 방영). Online: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50336&pgm_mnu_id=3214&contNo=et1706f0010800

2.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공동체

훈련담당자는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협력 사역, 양육훈련 중에 사용되는 성경 공부에 전도와 영성을 보완하는 양육 프로그램, 평신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평신도 지도자를 재생산하는 사역 등이 필요한데, 이는 양육훈련 13주차에서 14주차에 교육하게 된다. 이를 분담 목회, 성경공부와 전도훈련, 성경공부와 영성훈련,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도록 평신도들을 세우는 교회 등의 주제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분담 목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사역분배 및 협력사역

양육훈련 13주차 첫 번째 주제는 분담목회에 대한 이론과 실제이다. 훈련담당자는 왜 분담목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에 한국교회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은혜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먼저 소개한다. 즉 평신도들의 역할이 단순히 예배출석과 헌금에만 머무르고, 삶과 윤리가 없는 값싼 은혜로 인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언론매체들의 보도 자료들을 통해 제시한다.

두 번째 단계로 훈련담당자는 양육훈련 속에 사도바울이 지역교회들의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에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사역을 구분하는 분담목회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실제적인 사역의 분배는 목회자의 경우, 설교와 기도, 교육과 양육을 포함한 행정 전반에 대한 방향제시 및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을 조정하며, 교회비전이 교회 전체 사역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역을 총괄하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양육훈련을 통해 교육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평신도 사역자들은 평신도들의 목자로서, 성도들의 가정 사역, 구역 모임, 다양한 교육 분야의 사역 등을 실제로 담당하면서 기존의 평신도 사역 범위를 뛰어넘어서 평신도 목회자라는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주체라는 분담 목회의 내용을 평

신도들에게 알려야한다.

세 번째 단계로 분담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교회들에 대한 연구발표로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세 교회를 제시하도록 한다. 첫 번째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성경적인 사역의 분담이 가능하도록 사역을 분리하여 평신도들이 모든 사역의 주체로서 성실한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휴스턴서울교회이다. 특히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전도, 심방, 상담을 포함한 모든 봉사 활동 및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평신도들이 감당하는 사역현장을 소개한다. 두 번째 교회는 양육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평신도지도자로서 평신도들을 세우는 평신도 양육훈련을 진행하며, 세상 속에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 나눔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문화를 세워나가는 나성영락교회를 소개한다. 세 번째 교회는 지역사회 현장으로 교회가 직접 찾아가 봉사와 섬김을 하는 1단계, 지역사회가 교회로 들어오도록 교회 안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단계,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는 3단계를 단계별로 추진해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이루어가는 녹양교회를 소개한다. 특히 신앙기준과 함께 윤리적 모범을 교회와 지역사회에 제시하며, 사회복지를 통해 전인구원의 기독교 공동체 문화를 지역사회에 심는 현장을 소개한다.

마지막 단계로, 평신도 양육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협력사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담목회의 실제로서, 평신도 양육훈련이 끝나게 되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평신도 양육훈련을 마친 훈련자들을 평신도 지도자 사역자로 임명하는 특별 순서를 갖도록 한다. 목회자는 먼저 성도들에게 성도들 앞에 서있는 평신도 목회를 담당하게 될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 구역에 속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환자들, 상담이 필요한 지체들을 지역교회의 이름으로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 구역, 삶의 일터 등에서 평신도 목회 양육자들을 섬기며, 도와줄 것을 다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목회자는 평신도 지도자 즉 평신도 목회 양육자에 대한 사명과 역할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전달할 사명을 가진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은 종교개혁부터 개신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었음을 알리고, 미리 배포한 평신도 목회 양육자의

성경적인 근거와 사역의 범위, 훈련을 마친 선배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 현황과 앞으로 사역하게 될 수료생들의 각오와 사명 등을 설명 또는 발표하도록 한다.

따라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는 분담목회 원칙을 제시하며 준비하는 평신도 양육훈련은 평신도 훈련 리더뿐만 아니라 양육훈련을 받는 모든 평신도들을 양육과정에서 리더들만의 나눔이 아닌 모든 지체들과 함께 깊은 삶의 나눔과 고백을 가짐으로써 일부 지도자들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양육훈련 자체가 삶과 분리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나. 성경공부와 전도훈련: 전도 실습과 토론 및 발표²⁰⁷⁾

양육훈련 13주차 두 번째 주제는 ‘성경공부와 전도훈련’이다. 평신도 양육훈련이 단순히 성경공부를 통한 지식 위주의 강의에 머무른다면,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삶 속에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평신도 양육훈련은 기존의 성경공부식 평신도 양육훈련을 앞에서 살펴본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통전적 이해와 접근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즉 양육담당자는 성경공부를 통한 지식 중심의 양육훈련 프로그램에 전도 실습과 이에 대한 토론 및 발표의 과정들을 추가함으로써, 삶 속에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은혜의 경험 등을 다양한 현장의 상황들과 함께 훈련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평신도 양육훈련 보완 부분은 기존의 양육 훈련 일정과 내용들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즉 모임의 시작 때마다 훈련생들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교제와 나눔을 가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평신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인 영혼구원을 향한 복음 전파를 어떻게 시도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웃과 직장 사회 속에서 나눌 때, 어떤 문제점과 난관들이 있었는지 소그룹별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나눔 시간을 가진 후에는 훈련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다른 훈련생들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만의 지난 주간의 전도 평가서를 만든다. 이처럼

207) 양육훈련 담당자는 성경공부와 전도훈련을 함께 접목하는 방식의 양육훈련은 2주차부터 적용하지만,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은 13주차 양육훈련에 설명하도록 한다.

소그룹별 나눔 시간과 훈련생 개인의 평가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모든 훈련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본인의 전도 실습에 대한 반성과 다른 훈련생들이 전도 실습을 통하여 경험한 에피소드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성경공부의 지식적 훈련이 은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하도록 한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평신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훈련에 전도 실습과 토론 및 발표를 접목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아야 할 평신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말씀과 현장의 모습들을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 또한 양육내용인 성경 이해와 응용 질문들을 전도의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만듦으로 인하여, 귀납법식 성경공부와 같이 다양한 고민과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양육훈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 성경공부와 영성훈련: 삶의 나눔과 영성체험을 강화²⁰⁸⁾

양육훈련 13주차 세 번째 주제는 '성경공부와 영성훈련'이다. 평신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달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평신도 양육훈련에 영성 훈련을 첨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훈련을 위한 영성훈련은 앞에서 모델교회로 살펴보았던 교회들의 방식 즉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방문하여 몇 일간 영성훈련을 갖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는다. 즉 별도의 수련회를 갖는 것보다는 양육훈련 일정에 성경공부 모임과 함께 수련회에서 받는 영성 훈련의 핵심인 기도와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말씀을 훈련생들이 함께 통성기도, 나눔과 간증을 사용하는 집중적인 영성훈련을 양육 모임 내에서 가지도록 양육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기존의 성경공부 방식의 양육훈련을 수정하여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교제 내용 및 강의식 훈련 일정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훈련기간 동안에도 삶 속에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지식의 전달과 영성의 훈련을 함께 준비하기 위함이다. 즉 평신도의 양육 훈련은 양육훈련의 지식적 습득과

208) 양육훈련 담당자는 성경공부와 영성훈련을 함께 접목하는 방식의 양육훈련은 2주차부터 적용하지만,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은 13주차 양육훈련에 설명하도록 한다.

함께 기도와 나눔을 통한 영성적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훈련의 내용들이 훈련생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성경공부와 영성 훈련의 접목을 통한 삶의 나눔과 영성 체험은 단기간의 영성집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즉 일시적인 성령 충만 또는 인위적인 은혜 경험과 같은 감정 중심의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등의 왜곡된 현상들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문제들을 차단할 수가 있다.

따라서 평신도들을 위한 양육훈련은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강의식 훈련뿐만 아니라 훈련생들의 실제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경험과 고난 등을 하루의 일정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이와 함께 양육훈련생 전체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간증의 시간과 중보기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훈련생들이 영성체험과 함께 지체의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라.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 1대1 개인 멘토링

양육훈련 14주차 모임 첫 번째 시간에는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을 위한 1대1 개인 멘토링을 교육한다. 평신도 양육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계속해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즉 교회는 새로운 평신도가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양육을 받은 평신도들을 은혜의 전달자로 파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육훈련 담당자는 양육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을 새로운 평신도들에게 1대1로 붙여서 새로운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양육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이 양육훈련 기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새롭게 양육훈련을 받을 평신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례와 경험담을 통해 양육훈련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와 평신도 양육 훈련생이 양육훈련 중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고민들을 1대1 개인 멘토링을 통해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한편 평신도 양육훈련담당자는 1대1 개인 멘토링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의 모든 프로그램에 1대1 개인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평신도 훈련생들에게 권면한다.²⁰⁹⁾ 이와 함께 1대1 개인 멘토링을 전담하는 평신도 주도의 전문 부서와 1대1 멘토링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1대1 멘토링 교육 공간을 확보한다. 이 밖에 1대1 개인 멘토링의 좋은 사례를 모아 소책자를 배포하거나, 1대1 개인 멘토링의 다양한 사례들을 모은 자료들을 평신도 양육을 받게 될 예비 훈련생들에게 필독서로 읽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²¹⁰⁾ 이처럼 평신도들을 비롯한 교회 전체의 양육훈련에 1대1 개인 멘토링을 적용하게 될 때,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의 남녀 간의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남자 평신도 훈련생들이 훈련 초기부터 개인 멘토를 통하여 평신도 지도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교육받고, 자연스럽게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남자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대1 개인 멘토링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 사역은 새신자나 훈련을 받는데 주저하는 평신도들을 격려하며,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훈련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으며,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양육훈련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든다.

209) 양육훈련담당자는 평신도 양육 훈련을 마친 평신도 지도자와 앞으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예비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세미나 또는 1박2일 수련회를 통해 교회 내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를 둔 평신도 목회 철학과 교회 비전, 양육 훈련의 원칙들, 양육훈련 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제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210) 평신도양육 담당자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담은 매뉴얼과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과 노하우들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하여 교회 전체 평신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양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다. 또한 부서별 또는 기관별 평신도 지도자 양육을 위한 자체 매뉴얼을 발간해 교육부서에서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평신도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마.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도록 평신도들을 세우는 교회

평신도 양육훈련담당자는 양육훈련 14주차 마지막 시간에 앞에서 살펴본 분담목회의 이론과 실제, 성경공부와 전도훈련, 성경공부와 영성훈련, 1대1 개인 멘토링과 같은 사역원칙과 훈련방법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공동체,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평신도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함임을 알린다. 즉 평신도 양육훈련은 평신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며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양육시키는 것이다. 특히 분담목회와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을 위한 교육과정은 평신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시키도록 도와주고,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의 실제 생활을 불신자들이 보고 배우게 함으로써,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알린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훈련으로서 훈련담당자는 먼저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윤리의 부재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사회를 향한 비난과 문제들에 대한 소개를 한 후, 평신도 훈련생들이 그들 자신의 직장 일터 또는 이웃들의 생업 현장에서 주변 동료나 직원들과 함께 일과 봉사를 통해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교육한다. 이를 통해 훈련담당자는 훈련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들과 현재 준비 중인 세상 속에서의 사명의 삶 등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교회공동체의 문화가 자신의 일터에서부터 나타나 사회의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권면한다.

따라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14주차 양육훈련은 평신도들의 일터와 생활 현장을 은혜의 통로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핵심거점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특히 양육훈련 중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직장내 교회 속에서 경험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고민과 신학적인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양육훈련 일정에 넣음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내의 사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로서, 평신도

들을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리도록 한다.

제 4 절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통전성을 통하여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훈련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감사의 고백과 소망 가운데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신도 양육훈련담당자는 훈련생들이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사명을 나누며 사회 변혁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평신도들이 양육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역하는 교회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훈련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신도들이 지체들을 배려하며 지체들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며 세상 속에서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게 된다.

특히 양육훈련을 인도하는 평신도 담당자는 양육훈련을 통해 은혜의 통전성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훈련생들에게 교육시킨 후, 훈련생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을 회복하였는지를 소명의 재확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 긴장의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 중보기도와 헌금을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 융통성과 배려, 감사와 격려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결론적으로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양육훈련은 평신도 훈련담당자가 주체가 되어 평신도들의 개인으로서의 은혜 상태를 조사한 후, 평신도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각 분야의 사역 현장 속에서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분담 목회를 평신도들에게 교육하고,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성경공부를 통한 강의식 방법에 전도 실습과 이를 통해 경험하게 된 은혜들을 훈련생들 간의 토론 및 발표하는 과정을 도입하고, 훈련생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영성훈련을 강화하며, 평신도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1대1 개인 멘토링을 확산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끝으로 향후 평신도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평신도 양육을 통해 나타난 개인 삶의 변화와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 수많은 은혜의 사례들을 교육부와 각 기관들의 매뉴얼과 사례들을 소책자로 발간함으로써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평신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들을 교회 전체에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자가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평신도 양육 방안에 대하여 연구 주제를 잡은 것은 몇 가지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갈수록 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가 처한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고찰해 보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평신도들이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양육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자 은혜를 전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장별로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연구 요약

앞에서 살펴본 1장-5장까지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본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개요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의 용례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대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체성과 사명 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발견하였다. 첫째, 바울서신에 나타난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근원이

자 주체이시며, 은혜는 성도들의 현재 삶 속에서도 구원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 기쁨이 넘치도록 변화시키신다. 둘째, 은혜의 근원이자 대행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나라의 상속자, 대권의 대행자, 둘째 아담, 주로서 자기를 비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하여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지체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다.

3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및 실천적 오류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당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교리의 의미를 오늘날 사역 현장 속에서 점검하지 않고, 교리의 단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교리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서, 개인 구원과 개교회 중심의 구원으로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는 문제, 현세의 문제들에 무관심하고 내세를 강조하는 시한부 종말론과 이와는 반대로 세상적 성공을 영적인 성장과 최고의 신앙으로 오해하며 현세의 축복에 매달리는 기복신앙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문제, 세상 속에서 기독교 윤리의 부재로 인하여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값싼 은혜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교회성장주의 사역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의 부재로 인해 세상과 교회가 단절되는 이원론의 문제를 알아보았다. 다섯째, 종교다원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복음이 상품화가 되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사역 현장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평신도 양육체계에 대해 살피보기 위해 한국교회의 사례교회로는 사랑의교회와 풍성한교회를 분석하였고, 미주한인교회의 사례교회로는 휴스턴서울교회와 나성영락교회를 고찰하였다. 사례교회들의 양육체계는 개교회의 교회비전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양육훈련체계를 갖추므로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 값싼 은혜, 교회와 사회의 분리, 복음의 상품화, 교회의 세속화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을 보여 주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육훈련들은 단점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은혜의 근원이자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양육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점검, 즉 은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신앙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또한 양육훈련 동안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고, 주입식 성경공부의 문제, 강의식 훈련과 집회식의 영성훈련이 분리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 밖에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 오류들에 대한 사례의 제공과 이에 대한 토론의 과정이 양육훈련 프로그램에 담겨 있지 않았다.

5장에서는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하여 평신도를 양육하기 위한 평신도 교회 비전, 양육훈련의 원칙들, 양육훈련 모델 등을 15주 평신도 양육 일정에 맞추어 3단계로 다루었다. 첫 번째 단계로, 교회 비전을 소개함으로 평신도 양육의 뼈대를 세우는 2-3주차 양육훈련과정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과 구원의 소망, 교회의 주체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평신도 사역자 등의 소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 평신도 양육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4-8주차에 걸쳐 진행된다. 4-5주차에는 은혜의 수행자, 대행자의 관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조명한다. 특히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둘째 아담으로서, 종의 형태로 출생하시고 겸손의 삶을 통해 자기비하를 스스로 실천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 되셨음이 강조된다. 6-8주차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혜자요,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서의 평신도를 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친다. 이와 함께 지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9-15주차에 걸쳐 진행되는 양육훈련 모델 과정은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돕는 열매 맺기 과정이다. 9-12주차에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 점검으로서 은혜지수를 파악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종말론적 긴장의 삶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지 개인의 삶을 점검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중보기도와 헌금생활을 공동체 속에서 감당하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행동의 융통성과 배려, 선한 말을 통한 감사와 격려를 통해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한다. 13-14주차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간의 사역분배 및 협력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사례를 살펴보는 분담목회, 기존의 성경공부식 양육훈련에 실습과 토론 및 발표를 보완한 전도훈련과 삶의 나눔과 영성체험을 통한 영성훈련을 하도록 한다. 또한 양육훈련을 받은 평신도들과 훈련대상자를 1대1로 팀을 만듦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례와 경험담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 재생산을 위한 개인 멘토링을 한다. 마지막 훈련단계는 양육훈련을 마친 평신도들이 모든 양육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속에서 평신도들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임을 훈련받는 과정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적용가능성, 제언

1. 의의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과 사회 속에서 약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과 개교회 성장 중심전략에 머무르는 기존 양육훈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근거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공동체 문화를 세워나가는 평신도 양육훈련이 필요함을 고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평신도 양육훈련 담당자를 통하여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과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사건을 과거의 경험으로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다양한 분야 속에서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은혜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성경공부 방식을 통한 지식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훈련, 영성훈련, 평신도지도자 재생산 과정을 양육훈련 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토론, 현장 실습, 삶의 나눔, 토론, 발표와 같은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2. 적용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평신도 양육모델 훈련의 적용 가능성은 양육훈련을 받는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혜의 통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평신도들이 양육훈련 과정을 받기 전에 얼마큼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 가운데 양육훈련을 통해 나타나게 될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죽은 은혜는 결과적으로 신학 지식과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경험을 얻게 되는 결과만을 낳게 된다. 또한 훈련생들이 기존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친숙한 수동적 교육 문화에 도전하여 양육훈련 모델에서 제시한 전도훈련, 영성훈련, 1대1 개인 멘토링과 같은 기존 성경공부식 양육훈련에 보완되어진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근거를 둔 양육 훈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습, 토론, 발표 하느냐에 본 양육훈련 모델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양육훈련 모델의 성패는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공동체 파트에서 처음 제시한 것처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협력하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수혜자이자 은혜의 전달자로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평신도 지도자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좌우할 것이다.

3. 제언

첫 번째, 본 양육훈련 모델은 교재가 아니라, 교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육훈련을 위한 준비모임을 통하여 은혜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양육훈련 리더를 통해 훈련생들이 단순히 강의식 주입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또는 전체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훈련생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매 훈련 때마다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신도 양육훈련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훈련생들에게 사례와 연관된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제시하며, 토론과 발표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평신도지도자를 잘 훈련시켜야 한다.

두 번째, 본 모델은 큰 그룹이 아니라 작은 그룹의 모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이와 같은 양육훈련 모델을 시행하였을 때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개선점과 제안들이 나왔었는지, 부서에 적합하도록 보완된 양육훈련 일정이나 과정은 무엇인지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양육훈련 매뉴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자료를 책자로 발행하여, 기수별로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더 풍성한 나눔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본 논문에서 언급한 사회변혁적인 차원의 접근은 개인의 영혼구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다루어졌기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음의 상품화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라는 유흥 속에서 지역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평신도 양육훈련을 통해,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윤리의식과 책임을 제시하며 사회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부록 1

은혜의 통전적 이해에 기초한 15주 평신도 양육 일정

1. 오리엔테이션 (모든 staff과 훈련생 참석)

- 1) 1주차: 모임 일정과 과제 설명, 1대1 개인 멘토 소개, 강사 및 훈련생 소개

2. 뼈대 세우기: 교회 비전 소개 (담임 목회자)

- 1) 2주차: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은혜를 통한 현재의 삶, 구원의 소망)
- 2) 3주차: 은혜를 전달하는 평신도 (교회의 주체, 평신도 사역자)

3. 뿌리 내리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

- 1) 4주차: 은혜의 수여자,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
- 2) 5주차: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주로서의 그리스도
- 3) 6주차: 은혜의 수혜자, 전달자인 평신도
- 4) 7주차: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종인 평신도
- 5) 8주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공동체 문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는 삶

4. 열매 맺기: 사역의 실제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역하는 공동체)

- 1) 9주차: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 회복하기 (소명의 재확인을 통한 관계 회복)
- 2) 10주차: 개인의 삶 점검 (종말론적 긴장, 고난)
- 3) 11주차: 공동체 생활 점검 (증보기도와 헌금)
- 4) 12주차: 이웃을 향한 성품 점검 (융통성과 배려, 감사와 격려)
- 5) 13주차: 분담목회의 이론과 실제, 전도훈련, 영성훈련
- 6) 14주차: 1대1개인멘토링 교육,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평신도사역자
- 7) 15주차: 평신도 지도자 임명 및 파송식

부록 2

양육 훈련과정 시간표

1. 수요일 또는 토요일: 평신도 훈련생들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택일 결정
 - 1) 19:00 - 19:30 삶의 나눔
 - 2) 19:30 - 20:00 전도실습 결과 조별 나눔 및 발표
 - 3) 20:00 - 20:40 주제 강의 1
 - 4) 20:50 - 21:30 주제 강의 2
 - 5) 21:30 - 22:00 조별 및 전체 영성 훈련
2. 주일: 모든 평신도 훈련생들이 함께 하는 모임
 - 1) 14:00 - 14:30 삶의 나눔
 - 2) 14:30 - 15:00 전도실습 결과 조별 나눔 및 발표
 - 3) 15:00 - 15:40 주제 강의 1
 - 4) 15:50 - 16:30 주제 강의 2
 - 5) 16:30 - 17:00 조별 및 전체 영성 훈련
 - 6) 17:00 - 18:00 저녁식사 및 교제

부록 3

은혜 전달자로서 체험한 사례 보고 양식

1. 훈련생 자기소개
2. 가정, 이웃, 직장 상황: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수성을 소개
2. 개략적인 사례 내용: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
3. 전달한 은혜 내용: 그리스도 소개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눈 방법
4. 도움이 되었던 은혜의 지수 소개
5. 부족하였던 은혜의 지수 소개
6. 교훈 내용: 무엇을 느꼈으며, 시행착오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소개
7. 향후 조언

부록 4

평신도 지도자 임명 및 파송 예배

1. 일시: 14주 평신도 양육이 끝나는 마지막 주 주일 오후예배
2. 사회: 평신도 양육 훈련 담당자
3. 사회자 소개말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평신도 양육 지도자 명단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각 구역에 속하는 가정들의 성도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사역하는 지체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평신도 목회 사역자로서 함께 사역하게 될 평신도 목회 양육자들을 소개하게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4. 평신도 지도자 임명식: 평신도 목회 양육자에 대한 사명과 역할 설명

1) 담임 목사의 주요 식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목회의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평신도 목회 양육자들을 목회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도와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로 임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앞에 서 계신 평신도 목회 양육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가정들과 삶의 일터, 다양한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며, 도와줄 것을 주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평신도 목회 양육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맡게 될 사역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인도하며, 서로를 세워 가시겠습니까?”

2) 담임목사의 성도들을 향한 협조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을 우리 교회의 평신도 목회 양육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도와 격려로 함께 도와 이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 평신도 목회 양육의 사역이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3) 간증: 평신도 양육 훈련생 대표 남녀 1인씩

4) 선포: 전체 회중들과 함께 평신도 목회 양육자를 위한 축복 기도문 낭독

5. 전체 성도들과 함께 하는 선언문

“은혜로운 주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아름다운 일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평신도 양육자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기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양육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여기에 서 있는 이 사역자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평신도 양육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위 멘트들은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의 부록2: 평신도 목회 양육자 임명예배 순서란을 참조하여 다시 재구성한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가정교회사역원. *가정교회 길라잡이*. 제49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
세미나 강의집 Vol. 49 (2012년).

“가정교회사역원 소개.”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Online: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 (2014년 4월 인용).

“가정교회사역원 사명, 사역방향과 목표.”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Online: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 (2014년 4월 인용).

강명옥. *양육리더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고용수. “제자화 교육의 과정과 방법.”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3 (1983).

고재길.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장신논단* (2013년 6월호).
117-143.

“교리.” 다음사전. Online: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24940&q=%EA%B5%90%EB%A6%AC> (2013년 6월 15일 인용).

“교회소개 2천2만 세계비전.” 풍성한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ww.psh.or.kr/>
(2014년 4월 인용).

“교회소개.” 풍성한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ww.psh.or.kr/> (2014년 4월
인용).

김덕수. *리더십 다이아몬드: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적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8.

김병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C-.” *목회와 신학* (2008년 12월호): 111-115.

김성건. “종말론 대두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5 (1992년): 103-121.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일산: 두날개, 2009.

_____. *전인적 치유 수양회*. 일산: 두날개, 2009.

- _____. *양육의 기쁨*. 일산: 두날개, 2003.
- 김세윤. “그 ‘사람의 아들’”(인자)-하나님의 아들. 서울: 엠마오, 1992.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바울 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출판사, 1995.
- _____.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7.
- 김의환. “한국교회의 성장둔화와 변영신학.” *신학지남* 65 (1998년): 9-21.
- 김정두. “제자훈련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 양육: 사랑의교회와 동산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2.
- 김창선. *복음의 진리를 위한 사도바울의 투쟁*. 서울: 한국성서학, 2007.
- 권연경. “바울서신에 나타난 구원의 확신.” *신학지평* 23:1 (2010년): 243-272.
- 권혁남. “목회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신앙 공동체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 (2012년): 29-72.
- 럼형천. *성화의 삶*. 서울: 두란노, 2008.
- _____. *새 생명의 삶*. 서울: 두란노, 2008.
- _____. “은혜.” *한마음* (2011년 12월호; 나성영락교회 창립38주년 기념 특집호).
- _____. *지도자의 삶*. 서울: 두란노, 2008.
- 문시영. “섬김과 나눔, 교회의 윤리로!”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202-209.
- 박귀동.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서울: 이오콤, 2011.
- 박동국. “바울의 성화론 내에서의 ‘몸의 행실 죽이기’(롬8:13).” Ph.D.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 2009.
- 박우영. “도덕적 성찰과 실천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연구.” *신학과 실천* 28
(2011년): 625-650.
- 박정근.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가 2*. 서울: 누가, 2002.
- 박종렬. “구원과 종말.”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2
(1992년).
- 박화경. “한국교회교육의 변화를 위한 과제들.” *기독교교육논총* 27 (2011년): 61-96.
- 박희민. *나성영락교회 20년사*. LA: 나성영락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1996.
- “받는 교회서 주는 교회로 대변신.” *미주한국일보* (2007년 1월 10일). Online:

<http://www.koreatimes.com/article/359016> (2014년 4월 인용).

“비전, 사역.”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ministry.sarang.org/org.asp>
(2014년 4월 인용).

“사랑의교회가 품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G`LOVE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News 우리* (2013년 12월 18일). Online:
http://news.sarang.org/newswoori/newswoori_view.asp?db_idx=90537§ion=W005(2014년 4월 인용).

“사역소개와 교회비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m.sarang.org/sub01/sub06.asp> (2014년 4월 3일 인용).

송인규. “한국교회의 3대 과제.”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254.

“신정아의 도덕적 기준 vs ‘교회 장로의 도덕적 기준’.” *LA별곡* (2007년 9월 20일).
Online: <http://yopangyopang.tistory.com/127>

심상범. *바울의 영성: 떨림(십자가), 울림(윤리), 어울림(공동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아틀란타 한인침례교회. “제67차 목회자 가정교회 세미나.” *가정교회세미나 강의집*.
(2010).

안명준.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복음과 신학* 5 (2002년): 65-82.

오정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News 우리* (2004년
1월호; 옥한흠 원로목사 추대 및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특별호).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_____. “사랑의교회와 함께 오직 은혜로 달려온 영광의 25년.” *News 우리*
(2004년 1월호, 옥한흠 목사 이임예배 특별호).

_____.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개정2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I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I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II 작은 예수가 되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I 성령, 새 생활의 열쇠*.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II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III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지역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두란노서원, 1987.
- “이랜드 비정규직에게도 봄은 오는가? 1.” *삶의 길목에서* (2008년 2월 18일).
Online: <http://blog.daum.net/jshsalm/12308062>
- 이복수. “사회활동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와 선교.” *기독교사상연구* 6 (1999): 117-144.
- 이은규.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양육하는 공동체.” *신학과 실천* 28 (2011년): 683-713.
- 이한수. “은혜의 우선성: 바울에 있어서 은혜 개념과 그 의의.” *신학지남* 72:5 (2005년): 105-119.
- 이현웅.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31 (2012년): 121-145.
-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교회와 신학* 30 (1997년): 33-43.
- 장석천. “미주한인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 장상. “바울신학과 영성.”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4 (1994년).
- 정재영. “세속화와 한국교회의 성장.” *현상과 인식* 18:4 (1994년): 61-86.

- “종교개혁신학, 정신은 계승하되 교리화는 주의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11월 16일자). Online: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379> (2014년 4월 인용).
- “청년 사랑의교회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비전비상 (飛全飛上)’하라.” *News 우리* (2008년 9월 21일). Online: http://news.sarang.org/newswoori/newswoori_view.asp?db_idx=33906§ion=W005 (2014년 4월 인용).
- “친숙한 교회연합, 신학적 해석이 끝난 주제인가.” *뉴스앤조이* (2005년 11월 23일). Online: <http://cafe.daum.net/tknewsnjoy/NUiU/324?docid=338119959&q> (2014년 4월 인용).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최원준, 문인수. “10년후 한국교회 설문조사 결과분석.” *목회와 신학* (2009년 7월호): 90-98.
- “따스한 울림, 작가 이지선 편,”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013년 9월 9일 방영). Online: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50336&pgm_mnu_id=3214&contNo=et1706f0010800
- “5단계 양육과정을 통한 비전.” 나성영락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ww.youngnak.com/%EA%B5%90%ED%9A%8C%EC%86%8C%EA%B0%9C/%EC%96%91%EC%9C%A1-old.htm> (2014년 2월 인용).

2. 번역 서적

- Banks, Robert, and Bernice M Ledbetter. *신앙의 눈으로 본 리더십 (Reviewing Leadership: A Christian Evaluation of Current Approaches)*. 황의무 역. 서울: 살림, 2008.
- Barrett, C. K. *국제성서주석 고린도후서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Bethge, Eberhard.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 Caliguire, Jeff. *사도 바울의 리더십 비밀 (Leadership Secrets of Saint Paul)*.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Donahue, Bill.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월로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 Dunn, James D. G. *바울신학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_____. *WBC 성경주석 로마서 9-16, Vol. 38하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8B Romans 9-16, Vol. 38B)*. 김철,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5.
- Fee, Gordon D.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길성남 역. 서울: 좋은씨앗, 1996.
- _____. *바울의 기독교론: 목회적 감각의 해석학적-신학적 연구 (Pauline Christology: An Exegetical-Theological Study)*.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Hendriksen, William. *헨드릭슨 성경주석 데살로니가전후서 (Exposition of I and II Thessalonians)*. 김용섭 역. 서울: 아가페, 1984.
- Lightner, Robert P. *두란노 강해주석시리즈 26: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Colossians)*. 정민영, 허미순, 김윤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7.
- Nelson, Alan E. *시대가 원하는 영성리더십 (Spirituality & Leadership: Harnessing the Wisdom, Guidance, and Power of the Soul)*. 이장우 역. 서울: 누가, 2004.
- Richards, Larry. "은혜." *신학용어해설사전 (Dictionary of Basic Bible Truths)*.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304-305.
- Stevens, R. P. *평신도가 사라진교회?: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8가지 영역*

신학 (*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_____.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1.

3. 외국 서적

Ascough, Richard S., and Charles A. Cotton. *Passionate Visionary*. Peabody, MA: Hendrickson, 2006.

Bauer, Walter. "χάρις." In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Vol 2.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876-877.

Danker, Frederick William. "χάρις." In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Vol. 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79-1080.

Friedrich, Gerhard. "χάρις κτλ."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9.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393-399.

Hwang, Jin K. "Jewish Pilgrim Festivals and Calendar in Paul's Ministry with the Gentile Churches." *Tyndale Bulletin* 64:1 (2013): 89-108.

Swindoll, Charles R. *The Grace Awakening*. Dallas, TX: Word Pub., 1990.

William Danker, Frederick. "χάρις." In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Vol. 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79-1080.

Wright, N. 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Vol. 1.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3.

_____. *Paul for Everyone: 1 Corinthian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04.

_____.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HarperCollins, 2008.

Zimmerli, Walther. “χάρις κτλ.”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9.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381-387.

Vita of
Eun Young Yeob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VRIM Presbyterian Church, La Crescenta, CA 91214, USA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19, 1970

Marital Status: Married to Na Young Oh

Home Address: 250 N. Oakland Ave. #9, Pasadena, CA 91101

Phones: 213-507-2327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2005

Education:

B. A. Korea University of Engineering, Seoul, Korea, 1995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4

Th. M. Calvin Theological Seminary 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USA, 200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USA, 2014

Personal Experience:

2012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VRIM Presbyterian Church, La Crescenta, CA, USA

2008 to 2010 Assistant Pastor of Ilsan Presbyterian Church, Gyeonggi-do, Korea

2006 Cooperative Pastor of Sarangnuri Presbyterian Church, Gyeonggi-do, Korea

Professional Membership/Academic Honors:

2004 Magna cum laude graduation in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2003 Won the scholarship at the Boondang Central Presbyterian Church

1992 Earned a 4-year college full scholarship at POSCO